

말씀에 믿음을 보냈으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실감나는 오늘날, 주님이 주신 마지막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영명을 지켜 행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는 모든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7월 25일 (토) 제 1543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제자 양성 통한 세계복음화” 급물살

CT, “복음전도가 인구성장을 못 미친다” 보도

지난 100년은 복음이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빠르게 확산된 시기였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구촌 인구 중 거의 절반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은 2000년 정도가 소요됐다. 고든코넬 신학교내 지구촌 기독교연구센터(CSGC)에 따르면, 1900년에 전 세계 사람들 중 45.7%가 복음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수치는 70% 이상으로 증가될 수 있다고 예측한다.

선교 사역 단체들 또한 1970년에는 2,200여개에서 올해에는 5,100개로 두 배 이상이나 많아졌다고 밝혔다. 따라서 드디어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CSGC에 따르면

그러나 이러한 통계만 가지고는 속단할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2050년이 되면 전세계 사람들 중 2%에게만 복음이 전해져 총 72%에게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크리스치니티투데이(CT)는 선교 사역 단체들의 연구들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나 전력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지상 대명령’ 완수가 목전에 이르렀는데도 지연돼질 수 있는 원인들을 말해준다(Babies Halt the Great Commission: Christian researchers think population growth will stall the gospel's spr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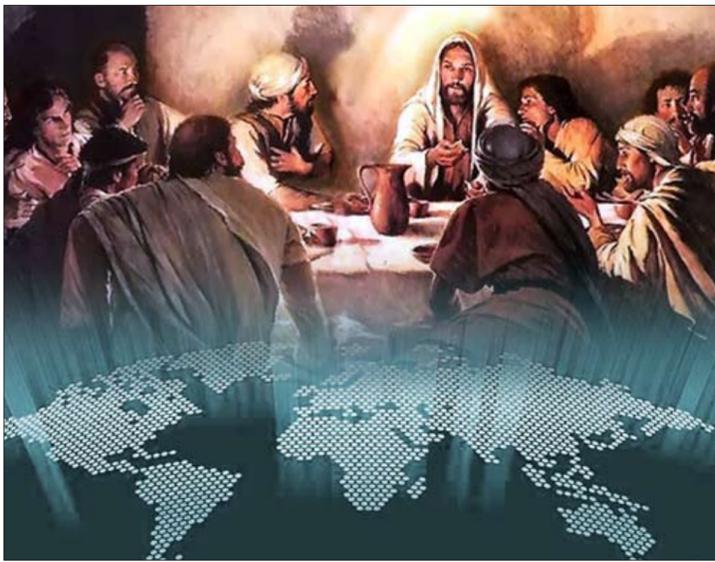
지난 한 세기동안 빠른 속도로 확산됐던 복음 전도를 지연시키는 원인들은 바로 태어나는 아이들, 지역 경쟁 종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만들어내는 전통과 시간이다.

20세기 복음 확산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완전히 만개했다. 다시 말해서, 세계 주요 종교들과 이렇다 할 매개체가 없는 아프리카 부족들에게, 선교사들은 무혈입성 하듯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퓨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 1907년에는 7백만 명에서 2010년에 4억7천4백만 명으로, 복음은 엄청난 속도로 확산됐다.

그러나 동일한 기간에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무슬림 숫자 역시 1천1백만에서 2억3천4백만 명으로 증가했고, 아프리카 토속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은 76%에서 13%로 감소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미 다른 주요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CSGC는 분석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퓨리서치 연구에 따르면 무슬림들 중에는 15세 미만의 극히 젊은 세대층이 군건하게 버티고 있다. 34%에 달하는 이들은 기독교(27%)나 불교(20%)에 비하면, 상당한 지지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무슬림은 최고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무슬림 여성들은 평균 3.1명으로 크리스천 여성들의 출산율(2.7%)보다 앞서고 있다.



서구사회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저출산율, 인구고령화가 문제시 되고 있으며 이는 기독교 복음화율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사항은 바로 무슬림 아이들이 놀랄게도 부모의 신앙을 지키는 보존율이 무려 77%라는 점이다. 따라서 2070년이 되면 이슬람이 기독교를 제치고 가장 큰 종교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무슬림 여성들의 고출산율과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따른다면...

같은 시기에 기독교는 4천만 명이 증가했지만, 동시에 1억6백만 명이 기독교를 떠났다.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 소폭 증가 2조1700억에서 2조9200억 명으로 늘었고, 여기에도 새로 태어난 아이들의 자동 유입이 포함돼있다.

(3면으로 계속)

IS 탄생, 1400년전 마호메트가 이미 경고했다

허핑턴포스트, “이슬람극단주의 출현 예고” 보도

최근 몇 차례 공격으로 ISIS 테러리스트들은 튀니지 해변 리조트에서 관광객 39명을, 쿠웨이트 시아파 모스크에서 신도 30명가량을 죽였다. ISIS가 지하드에 공감하는 무장대원들에게 라마단 기간에도 활동하라고 지시한 지 얼마 후의 일이다.

IS는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제거하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보여왔다. IS 대원들은 예지디들과 기독교인들을 학살해왔지만, 피해자들의 대다수는 IS에게 저항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거부한 무슬림들이었다. IS는 심지어 충성을 맹세하기를 거부한 수니파 성직자들, 그들의 세계관에 굴복하지 않은 무슬림 여성들까지도 처형했다.

바로 이러한 종교적 극단주의의 전횡과 횡포는 이미 1400년 전, 마호메트와 그의 계승자들에 의해서 경고됐다고 허핑턴포스트는 보도한다(Did Prophet Muhammad Warn Us of ISIS?).

이슬람 코란 말만 남고 모스크는 호화 진정한 영적 정수 사라지고 의식절차상 강요 불과 성직자들 부패하며 갈등 낚는 존재 돼

이슬람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모든 테러리스트 집단이 공통적으로 이런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어 탈레반의 피해자도 대부분이 무슬림들이다. 최근 몇 년 동안에만 시아파 무슬림들 수백 명이 살해당했다. 그리고 나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심지어 미국에서도 비슷한 공격으로 인해 아마다리아 무슬림 친구들을 여럿 잃었다.

그래서 반 이슬람 비판자들이 집요하게 무슬림들의 신앙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범죄를 연관지를 때 우리는 그들의 무감각함을 비난한다. 종교적 극단주의로 가는 동기 중 하나가 근본적인 극단주의자들이 성전을 왜곡해서 해석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런 해석을 거부하는 대다수의 무슬림을 ‘독실하지 않다’거나 ‘명목상’으로만 신자라고 딱지 붙여서는 안 된다.

코란을 정직하게 연구해보면 IS같은 집단은 이슬람의 명령을 완전히 거스르며 행동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코란은 한 명을 죽이는 것이 인류 전체를 죽이는 것과 같다고 하고(5:32). 현재에서의 박해와 무질서는 더욱 나쁜 행위라고 한다(2:217). 코란은 평화, 정의, 인권을 강조한다.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고, 배교와 신성모독에 대한 속세에서의 처벌을 금지한다.

선지자 마호메트의 전통을 연구해보면 그가 이 시대의 종교적 극단주의를 놀랄도록 자세하게 경고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1400년 전 그는 이슬람이라는 이름만 남고 코란의 말만 남는 날이 올 것이며, '호화롭게 꾸몄지만 길잡이는 되어주지 못하는 모스크들이' 많을 것이라 예언했다(미시카를 마사비).

(3면으로 계속)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온라인(Online) 기독교상담학과

- 1. 학사: 성서학(BABS), 기독교상담학(BACC)
- 2. 석사: 목회학(M.Div), 신학(MAT), 기독교상담학(MACC)
- 3. 박사: 목회학(D.Min)
- 4. 세계 모든 곳에서 통신과 온라인으로 학위 취득 가능
- 5. ATS 인가 학위로 미국 주류 기독교 대학과 학점 인정 및 편입학
- 6. 연방정부 학비 지원, 선교사 장학금, 목회자 장학금, 부부 장학금

미국 대학교 인준기관
ABHE, ATS, TRACS
www.wmu.edu /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그리스 비극 되풀이 고대역사 유산 때문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박시경 박사 (그레이스신학대학원)



김강한 목회자, 김강한 교회 임예선 박사

2015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본 협회는 아래와 같이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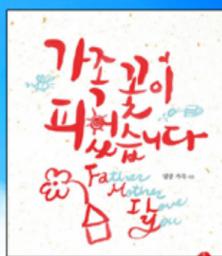
1. 대 상 :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및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 법 : 추천도서 6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Letter 또는 A4 size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며, 제출마감일은 2015년 10월 15일 미서부시간 오후 5시까지입니다.
3. 제출처 :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4. 시 상 :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일 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주최 :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박재호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 미주기독교방송(로스엔젤레스, 미국)
- 미주복음방송(로스엔젤레스, 미국)
- 미주크리스천신문(NY, LA 미국)
- 아멘넷(뉴욕, 미국)
- 유럽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 크리스찬 월드(토론토, 캐나다)
-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추천도서



입양가족, 홍성사



데이빗 플랫 저, 두란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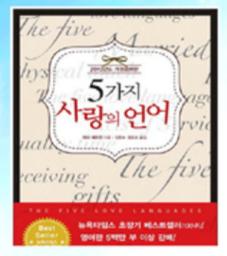
일리스터 맥그래스, 성서유니온



김미진 저, 규장



데이비스 케넌 저, 국제제자훈련원



게리 채프만, 생명의말씀사

추천 *도서구입처

-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 말씀사 714-540-2211 www.lifebook.co.kr
-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시론

내게로 돌아오라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사람이 망각할 수 있는 것은 때로 큰 축복이다. 사람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힘든 일, 아픈 일, 도무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 인생의 위기와 고난들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소용돌이 속에 놓여 신음할 때가 많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의 하나는 삶의 어려움과 위기, 고난들을 통해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교훈들을 얻어내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을 다시 한 번 반추하고 기억해내는 것일 것이다. 나에게도 7월은 기억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귀중한 달이 되었다. 아마도 나는 내 생애 7월에 있었던 일을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것이다. 작년 7월에 뜻밖의 뇌수술을 하게 되면서 인생,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큰 위기를 겪었기 때문이다. 일종의 뇌출혈인 경막하출혈로 응급수술을 하게 되었고 생명은 찾았으나 언어기능을 담당한다는 왼쪽 뇌를 수술했기에 한동안 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 때 나는 내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회의를 느꼈다. 내가 말하는 일상의 삶은 목사로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었다. 뭔가를 말하고 싶어도 말이 나오지 않았고 말이 생각나도 입이 열리지 않았다. 말을 하기는 해도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꾸만 결길로 빠져나가는 느낌이란! 말을 가지고 사는 목사가 말을 할 수가 없으니 '목사'가 아니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와서 계속 성경을 읽었다. 마침 평소에도 어렵다고 생각하던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 그런데 자꾸만 '돌아오라'는 말씀이 눈에 띄었다. 이사야서에 그렇게 많은 '돌아오라'가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그러다가 돌아오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렸다. 하나님은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감동이 왔다. 그 순간 나는 '저는 주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요?'라고 하나님께 반문하였다. 그 뒤에도 계속 돌아오라는 말씀은 내 마음을 흔들었다. 그래서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졌다. 늘 바빴고, 그래서 말씀도 대중대중 읽으면서 잘 사는 줄 생각했다. 기도시간도 억지로 시간만 채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부분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했다. "하나님, 저 돌아갈게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 후로 성경도 소리 내어 읽고, 아내 한 사람을 앉혀놓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하였다. 처음에는 말이 나오지 않아 애를 먹었다. 한 마디하고는 한동안 말을 뭉뚱뚱 쳐다보기도 했다. 그래도 그날 밤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 그 결과 7월 9일 수술을 받았는데 그 날을 뒤집은 9월 7일에 첫 설교를 했고 10월부터는 계속 설교를 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최근 극심한 캘리포니아의 가뭄과 한국의 메르스 사태와 같은 전염병, 동성결혼 합법화와 같은 이슈들, 그리고 갈수록 하나님을 등져가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는 "내게로 돌아오라"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읽혀진다. 물론 지금은 가뭄과 전염병 등이 하나님의 징계수단이었다면 구약시대도 아니다. 그런 면에서 합동신학교의 송인규 교수의 지적은 옳다고 생각한다. "구약시대는 신성 통치적 섭리 방식을 취했기에 심판이 상응적이며 즉각적이었으나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중보자적 통치의 도입으로 심판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요5:22). 오늘날 재해 등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방식은 비상응적이고 유보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네팔이나 아이티의 지진, 일본의 쓰나미에 대해서도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간절한 기도와 적극적인 구호의 손길을 펼쳐야 한다.

하지만 교회사에 보면 이런 가뭄과 전염병이 창궐할 때 교회는 겸손히 회개하고 영적으로 각성하여 큰 축복을 경험한 예들이 나온다. 14세기 유럽의 경우 십자군 전쟁의 후폭풍으로 민생은 파탄 나 있었고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1/3이 죽었는데도 백년전쟁, 농민전쟁 등으로 유럽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다. 그때 잉글랜드의 작은 도시 노리치의 무명의 여사제 줄리안은 자신이 심한 질병을 앓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All shall be well)는 메시지로 백성들의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그녀가 하면 유명한 독일의 토마스 아 쾨페스는 거룩을 회복하고 겸손하게 온전하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것을 촉구하였다. 그는 불안과 고통을 느낄 때가 바로 축복의 시기이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희망을 붙잡으라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역설하였다. 지금의 가뭄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가뭄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고 설교한 후 주일, 이 건기에 폭우가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격려를 느낀다면 너무 오버하는 것인가.

그리스 비극 되풀이 고대역사 유산 때문

뉴스위크, IMF 감시 안에 갇힌 그리스 역사적, 정치적 배경 소개

"그리스는 실패한 국가다. 1830년대 독립 직후부터 그랬다. 우리가 원했던 나라를 건설하지 못했다. 프랑스에는 혁명과 계몽주의가 있었지만 그리스에는 그런 게 없었다. 우리 언제나 구식 오스만 제국과 현대 유럽 사이에서 타협하려고 했다." 그리스의 인기 배우 안토니스 카페토조풀로스(63)는 그리스가 겪는 역경의 역사를 간략하게 짚었다. 그만큼 그리스는 국가 재건이

나 근대화보다는 고색창연한 신화세계 안에 갇혀 살았다는 것이 그리스 지성인들의 한결같은 해석이다. 따라서 뉴스위크는 유로존 붕괴 가능성과 IMF 감시 체제를 불러일으킨 "그리스 사태"를 고대역사의 유산에 갇혀 현대화에 실패한 사례라고 진단한다(The Greek crisis reveals a nation crushed by ancient history).

그리스는 지난 7월 5일 국민투표에서 국제채권단이 추가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긴축안을 거부했다. 그러나 곧바로 냉혹한 현실에 부딪혔다. EU 지도자들이 추가 구제금융보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더 낫다고 판단하면 '그레시트'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만약 추가 구제금융이 합의된다면 일부 부채의 탕감과 긴축 프로그램의 완화가 포함될지 모른다. 어느 쪽이든 새로운 그리스의 건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고역이 될 것이다. 그리스 위기는 역사적인 뿌리가 깊다고 그리스 일간지 카티메리니의 야



and the Institution of Modern Greece'의 저자인 스타티스 구르구리스는 "강대국들이 다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상황으로 되돌아간 느낌이 팍배하다"고 말했다. "그리스가 부채를 갚지 않으려 한다는 주장은 과장됐다. 부채를 상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모든 문제는 외부의 강요 탓이다. 긴축정책은 그리스인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겼다. 그러나 긴축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그 결과 부당하다는 느낌이 커졌다. 그들은 우리가 무모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은

세계화 현대화 겁내는 허세 이면엔 열등의식...근본적 구조개혁 필요 부채 위기를 국제채권단과 독일 탓으로...관광객엔 여전히 휴가 천국

니스 팔라이오로고스 기자가 지적했다. "그리스인은 서방을 두려워하고 의심한다. 세계화와 변화를 겁낸다. 우리의 허세 이면엔 열등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 고대 세계에서 많은 것을 물려받았지만 현대화를 이루지 못했다. 우리는 자신의 결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제 그 결점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한다."

그리스는 수세기 동안 외부 세력의 지배를 받으면서 국민과 국가 사이의 유대가 끊어졌다. 탈세하고 국가를 속이는 전통이 애국적인 의무가 됐다. 그리스는 오랫동안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다가 1829년 독립했다. 초대 행정수반이던 이오아니스 카포디스트리아스는 중앙집권식 현대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 그러나 막강한 지방 군벌들이 반발하면서 그는 결국 1831년 암살당했다. 다음해 그리스 최초의 현대 국왕 오토가 즉위했다. 그러나 그는 독일 바이에른 출신의 왕자였다. 제1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1923년 터키에서 그리스인 수십

만 명이 추방됐고 터키인은 그리스를 떠나야 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그리스인은 나치에 점령당해 갖은 고초를 겪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로 '위험한 국민(Dangerous Citizens: The Greek Left and the Terror of the State)'의 저자인 네니 파누르기는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된 잔해 위에 그리스가 세워졌다"고 말했다. "철도도 도로도 없었다. 다리는 폭파됐다. 사회 기반 시설이 완전히 무너졌다. 전쟁과 기아, 보복 행위로 40만 명이 희생됐다. 재정적으로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서 내전까지 겪었다."

그리스 공산당이 일어난 내전은 1945년부터 거의 5년 동안 지속됐다. 그 내전의 심리적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다. 1967-1974년 미국의 지지를 받는 군사정권이 그리스를 통치했다. 이제 그리스는 부채 위기를 '트로이카'로 알려진 국제채권

단(국제통화기금IMF, EU, 유럽중앙은행ECB)과 특히 독일의 탓이라고 생각한다. 트로이카에 맞서는 싸움은 역사적인 독립 투쟁의 맥락으로 이어졌다. 그리스 역대 정부의 잘못이 무엇이었던 대다수 그리스인에게는 긴축정책이 원수였다. 실업률과 빈곤률이 치솟았다. 지중해의 쾌활함 이면엔 암울한 절망감이 흐른다. 컬럼비아대학 교수로 '꿈의 나라(Dream Nation: Enlightenment, Colonization

독일이 그리스를 무모하게 대한다." 오랫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았고 또 다시 포위당했다고 느끼는 그리스인으로선 음모론에 빠져들기 쉽다. 그리스의 유대인은 홀로코스트 당시 대부분 희생돼 이제 몇천명만 남았다. 그런데도 반인종주의연맹(ADL)에 따르면 그리스인의 69%는 반유대인 감정을 갖고 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비율이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The Korean Christian Press ■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665-0009 (대) / (323) 665-9025 (광고국)
Fax: (323) 665-0056 (편집국) / (323) 665-0046 (광고국)
E-mail: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 /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15년 가을학기 학생모집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USED) OPE ID: O3528300,
www.ope.ed.gov/accredit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 in Music 음악, BA in Theology 신학, 기독교교육,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 in Music 음악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Div 신학석사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Music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문의: 전화 (636) 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 327-4645 / Fax: (636) 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 730-4750 / Fax: (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제자 양성 통한 세계복음화” 급물살

(1면에서 계속)
인도는 현재 출산율이 다소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힌두교인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다. 현재 10억 정도의 인구가 2050년이 되면 10억4천만 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퓨리서치는 바로 이러한 인구성장률에 따라 10억3천만 명 정도의 힌두교인들이 2050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결국 인구 성장률이 현재와 같은 양상으로 진행된다면 퓨리서치가 전망하고 있는 2015년경의 종교 분포도가 정확하게 들어맞게 되는 것이다.

CSGC는 따라서 앞으로 선교 방향이 인구강대국인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지역들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래야만 지상대명령을

수행하고 완수할 수 있는 기반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국제 선교 사역단체들은 이미 복음을 전한 지역들에 또 다시 선교 사자들이 인적 자원들을 보내, 설립되어진 지역 교회공동체를 더욱 굳건하게 다져나가고 있다. 이제는 복음을 들은 구원 받은 사람에서 예수를 철저히 따르는 제자를 만들겠다는 의도이다.

1974년부터 2000년까지 90%의 선교사들이 복음이 들어간 지역들로 다시 들어가 교회를 세우거나 제자를 만드는 일에서 사역하고 있다. 바로 이때 교단들이나 대형교회 네트워크들이 효과적으로 교회를 세우거나 제자를 훈련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CSGC는 판단한다. 단순한 복음 전도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 한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지역들로 들어가 다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는 일종의 “복제”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근 선교 사역이 교회공동체 형성과 제자 만들기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복음을 접하고 나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선교지의 신앙인들을 움직이도록, 즉 복음을 증거 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실례로, 인도에서는 교회가 많이 성장해 있는 남부 지역에서, 미전도 부족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북부 지역으로 수천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지원하면서 교회 개척 운동을 하는 사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같은 나라의 백

성들이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역사,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문화 사역’(cross-cultural ministry)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결론으로, 이슬람과의 경쟁(?)에서 기독교는 뒤처진다. 바로 무슬림 여성들의 높은 출산율과 태어난 아이들의 종교 보전성에서, 일단 객관적으로 뒤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전도가 인구성장률을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제자 양성을 통한 세계복음화”가 탄력을 받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제자 양성을 통해 파송하고, 복음을 전해 제자를 만들어 땅 끝까지 복음이 확산되도록.

‘시편’ 은에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시편 124편: 사단은 나에게도 수시로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아름답게 지으신 에덴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접근을 해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동산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생애가 된 것입니다.

사단은 그와 대화를 통하여 죄의 것이 그들에게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대화를 통하여 본인도 모르게 사망의 생각이 마음에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망의 생각이 그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을 대항하며 죄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내 안에 나타나는 죄에서 나오는 사망의 생각과 대화하는 것을 깨어서 아주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망의 생각과 대화하다가 나도 모르게 죄의 영향이 마음에 스며들게 되고 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임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서서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마음은 굳어지게 되고 마음에 사망의 그늘이 형성되고 그늘진 마음에서 사망의 소리들이 서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의 소리, 비판의 소리, 불만족의 소리, 미움의 소리, 열등의 소리, 불안, 이러한 생각들이 서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전으로 성령 받은 우리 마음이 부정하여지게 됩니다. 이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하는 성전에서 그러한 거룩함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망의 것이 나타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처음 나타나는 사망의 생각과 대화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서 사망의 생각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거절하여야 합니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죽여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생각의 대화를 통하여 마귀가 넣어준 것입니다. 그 생각이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죄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을 이용하여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단은 우리를 이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영적인 동일한 사건들이 수시로 나타나는 것을 알고 항상 깨어 거절하여야 합니다. 죄의 영향을 당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생각이 나타나면 믿음으로 영접하고 마음에 품어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성전으로서 잘 지게 됩니다.

목회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 언제든지 접근하는 사단의 방법 즉 사망의 생각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거절하여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에게로 생각을 돌려서 생명의 생각을 품어서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하였는데 주님의 지체가 되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사망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에 접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거절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의 방향을 주님에게로 돌리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귀한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거룩한 지체로 쓰임을 받아야 장차 주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IS 탄생, 1400년전 마호메트가 이미 경고했다

(1면에서 계속)
그런 미래가 되면 이슬람의 진정한 영적 정수는 사라질 것이며, 종교는 대개 의식 절차상의 강요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 했다. 그는 이런 시기에 성직자들은 부패할 것이며 갈등을 낳는 존재가 될 것이라 예언했다.

무슬림 세계 일부에서 설교단을 남용해 분리와 증오를 설교하는 극단주의자 성직자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잘 맞아 들어가는가.

그는 IS와 같은 테러리스트 집단이 이슬람의 신앙을 장악하려 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런 불화의 시기에는 ‘생각이 성숙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젊은이들의 집단’이 나타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아름다운 말을 하지만 가장 극악무도한 행동을 저지러 것이다. 그들은 기도와 금식에 지나치게 열중하여 그에 비하면 무슬림들의 숭배는 대수롭지 않아 보일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을 코란으로 부를 것이나 현실에서는 코란과 아무 상관도 없을 것이다. 코란은 그들의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즉 그들은 코란의 정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그저 몇 구절을 되뇌이기만 할 것이다. 마호메트는 이런 사람들을 ‘죄악의 생물들’이라고 묘사했다.

이 정도 설명으로는 부족하기라도 하다는 듯, 선지자 마호메트의 네 번

째 계승자인 칼리프 알리가 남긴 키타브 알 피탄이라는 책의 전통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기르고 검은 깃발을 들 거라고 묘사했다. 그들의 ‘심장은 쇠처럼 단단할 것이고, 한 국가의 동반자들일 거라고 했다(아삼 다울라). 흥미롭게도, IS는 자신들을 이슬람국가 혹은 다울라라고 지칭한다. 그들이 계약을 깨뜨릴 것이고,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들의 도시를 언급하는 이름을 가질 것이라고도 언급한다. IS의 칼리프인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가 떠오른다.

선지자 마호메트는 분노하며 이러한 사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묘사했고, 무슬림들에게 그들의 악함을 조심하고 맞서 싸우라고 강력히 충고했다. “그들과 맞서 싸우는 사람

은 누가 됐든 알라에게 그들보다 나은 사람이다”라고 선언했다.

이 중요한 선언을 잘 되돌아보자. IS가 이슬람의 이름으로 살인할 때마다, 코란을 따른다고 주장할 때마다, 신성한 라마단을 이용해 전 세계에 난장판을 벌일 때마다, 선지자 마호메트는 이런 사기꾼들이 나타날 거라고 분명히 경고했고, 그들을 뿌리 뽑는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 사실을 되돌아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IS, IS 동조자들, IS가 진짜 이슬람이라고 세상이 믿길 원하는 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뿐이다. 반면 지성인들은 선지자 마호메트의 예언 속의 지혜를 보고 단결해 무지와 극단주의에 맞선다.

그리스 비극 되풀이 고대역사 유산 때문

(2면에서 계속)
아테네의 투자은행 그룹 악시아 캐피털 마켓츠의 콘스탄티노스 쿠포폴루스 대표는 “전 세계가 우리를 적대시하며 파괴하려 한다는 음모론이 성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의 경제력 무기력을 외세 탓으로 돌리는 사고방식에 강한 반감을 가진 신세대 사업가다.

“그리스인에겐 유대인, 미국인 등 늘 잘못을 탓할 상대가 있다. 지금은 독일인이다. 그리스인은 열등감을 우월의식으로 포장한다. 우리는 세계가 우리에게 빚졌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사실일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빚가 해야 한다.”

사회주의 정당 파스코와 보수 정당 신민주당이 수십 년 동안 권력을 나눠가진 결과 서로 뒤를 봐주고 눈감아주는 문화가 생겼다고 팔라이오로고스 기자가 말했다. “두 정당이 번갈아 권력을 잡고 특권을 누리다 보니 그리스인이 국가에 충성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들은 ‘정부가 사복을 채우는데 왜 내가 세금을 내야 하나’라고 생각한다.”

부패한 지배 계층을 향한 분노가 고조되면서 지난 1월 급진좌파연합 정당 시리자가 급부상에 우의 독립그리스당과 손잡고 새 정부를 탄생시켰다. 아테네에서 가까운 피레우스항 부근의 빈곤 지역 드라페트소나에서 시의원으로서 활동하는 엘레니 키라마르키우(34)는 “시리자 정치인은 구식 정치인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들은 민생에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시리자는 빈곤과 실업에 신경 쓴다. 그들은 실업자와 빈민층의 구직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드라페트소나에선 그런 관심이 절실하다. 이전에 일자리가 많았던 가죽·시멘트·비료 공장이 문을 닫았다. 실업률이 높고 사회적 박탈감이 팽배하며 이민자도 많다.

그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 의식은 여전히 강하다고 키라마르키우 의원은 말했다. “학교 공동체가 서로 돕는다. 좀 더 여유 있는 가정이 가난한 가정에게 베푼다.” 그는 이번 국민투표 결과에 만족한다. “재정 문제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다. 강대국이 아

니라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재정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아테네 북부 교외 도시 키피시아는 드라페트소나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조용하고 가로수가 늘어진 거리엔 고급 아파트와 우아한 빌라가 즐비하다. 2009-2011년 총리를 지낸 게오르기우스 파판드레우 같은 정·재계 엘리트가 사는 곳이다.

파판드레우 전 총리는 노련한 정치인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그 역시 국가의 낭비벽에 충격 받았다.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몰랐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고 그는 말했다. 알 아본 결과 인구 1100만 명인 나라에 공무원이 71만6000명이었다. 그에 비해 인구 6400만 명인 영국에는 공무원이 44만7000명이다. 파판드레우 전 총리는 집권 2년 만에 공무원을 56만 명으로 줄였다. 아직도 많은 편이지만 이전 매년 정확한 인원수가 집계된다.

정치가 불안정하지만 좌익과 우익은 현 상태를 지속하길 어렵다는 데 동의한다. 파판드레우 전 총리는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이루려면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금이 실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세

제를 고쳐야 한다. 부패와 높은 세금이 더 많은 부패를 부른다. 재산세와 사치세를 도입했지만 충분치 않았다.”

유로존을 떠나선 안 된다는 점엔 그리스인 모두가 동의한다. 옛 통화 드라크마로 돌아가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큰 재앙이 닥친다. 통화의 급격한 평가절하가 뒤따를 것이라고 파판드레우 전 총리는 지적했다. “5년 전에 드라크마화로 돌아갔다고 해도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지금은 훨씬 더하다.”

그러나 관광객에게 그리스엔 여전히 휴가의 천국이다. 쾌청한 날씨와 낭만적인 해변에다 문화와 역사가 풍요롭다. 사람들이 정이 많고 친절하다. 그들은 현실에 적응해간다. 현금 자동입출금기(ATM) 앞에 줄이 길게 늘어난 광경을 제외하고는 아테네의 삶은 이전처럼 계속된다.

기오르고스 카미니스 아테네 시장은 “누구도 지금의 상황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엔 큰 충격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잘 대처하고 있다. ATM에서 한도액 60유로를 출금하려고 인쇄된 있게 줄 서서 기다린다. 아테네엔 아직도 관광객이 보고 체험할 게 술하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을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On Campus Courses

2015 가을학기 강의 안내

Sept 28-Oct 2(9월 28 -10월 2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ter & Dr. Stephen Park

Oct 5-9 (10월 5-9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Oct 8(10월 8일) 특강: Dr. Scott Moreau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ter

DI 8220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 (구약에서의 문화)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iberius Rata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소박한 신앙, 행복한 가정

세계 최대 최강국인 미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매일 일어난다. 하루에 태어나는 9,077명의 아기 중에 1,282명은 사생아이고 하루에 2,740명의 아이들이 가출한다. 하루 69,493명 십대들이 성병에 감염된다. 강간은 매 8분마다 살인은 매 27분마다 강도는 매 78초에 한 건이 발생한다. 절도는 매 10초마다 일어나고 자동차는 매 33초마다 한 대씩 분실된다. 그리고 하루에 2,740명의 십대들이 임신된

다고 한다. 어떤 잡지사에서 20년 이상 된 부부들을 상대로 조사했는데 다시 태어나도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하겠는가 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은 4%만 yes라고 대답했는데 우리 한국의 잘산다는 강남의 부유층 사람들은 75%가 강력하게 NO했고 20%가 좀 생각하고 대답하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좀 생각하고 대답하겠다고 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더 생각해봐야 하는

가 물었더니 자신이 이 사람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는가를 점검해보아야 한다고 하더라. 그런데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점검해보아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란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여러분은 행복한가?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밀레의 '만중' 그림이 1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림 한 장에 어떻게 1조원을 낼 수 있겠는가? 값어치가 비싸도 너무 비싸다. 그런데 해설을 그렇게 달았다. '이것은 값어치가 1조가 넘는다는 것이지 실제로 팔면 얼마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10조가 될지 20조가 될지 모른다는 말이다. 그렇게 귀하단다.
밀레의 그림 '만중'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왜 그렇게 귀한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아름다움이 잘 담겨있기 때문이다. 보시라! 두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을 한다. 피곤하고 지쳤다.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늦도록 일을 하다가 교회로부터 종소리가 들려온다. 그때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입은 웃은 남루하다. 그의 신발은 실내화라고 한다. 실내화, 실외화가 따로 없는 이런 신발을 신고 지낼 만큼 가진 것이 없다. 바구니에는 감자 몇 개 밖에 없다. 얼굴은 씻지도 못했고, 머리를 다듬지도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이다. 그의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 괴로움, 고민, 욕심이 전혀 없다. 그 마음에 누가 계시기 때문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행복하다.
우리는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땅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권력에서 찾다가 드디어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물질에서, 이 세상의 부귀영광에서,

행복을 찾아 누린 사람이 있는가? 오히려 그곳에서는 행복보다는 더 많은 상처와 고통과 불행이 현대인들은 겪고 있다. 행복은 오직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다. 그를 구주로 영접하여, 잘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과 그 영혼에 축광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다. 주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일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지금 동성결혼에 대한 말들이 많다. 오늘 아침 어느 지인으로부터 카톡으로 메시지를 받았다. 두어 주 전에 동성에 결혼이 합법이라는 연방대법원의 발표가 있었는데 벌써 자녀들에게 동성애자들의 성교육에 대한 걱정이 많단다. 더구나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하면서 적어도 자녀의 성교육은 부모의 허락 없이

는 절대로 시킬 수 없다는 탄원서가 준비되었고 여기에 10만 명 이상의 시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0만 명의 시민이 채워져야 백악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보통사람들의 인권도 인정받도록 목소리를 내자는 것이다. 놀라운 세상이 되었다.
진정한 행복은 소박한 신앙의 가정의 순결과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비뚤어진 동지에서는 올바른 달걀을 구할 수 없듯이 비뚤어진 가정에서 건강한 자녀들을 기대할 수 없다. 소박한 신앙, 행복한 가정, 절대 상관관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인권과 자유다 가져도 소박한 신앙이 없이는 가정의 행복이 없고 가정의 행복과 순결과 없이는 누구도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소박한 신앙 가정의 행복이 생각해야 하는 계절이다.

푸 / 른 / 초 / 장

고택원 목사
(새한장로교회)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참으로 중대한 것이 영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 가슴에 실존적인 공허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이 많고 쌓아놓은 재산이 많아도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는 것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하여 묻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를 통해 현대인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지식과 행동의 불일치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행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 이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고전8:1)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심리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29절)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신경을 썼습니다. 현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자기를 칭찬해 주면 우쭐해하고 나쁜 말을 들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자기의 생각이 가장 올바른 것처럼 행동합니다. 옳게 보이려고 하기에 잘못을 저지르고도 변명을 합니다. 무엇이든 정당화하려고 하며 자기가 옳다는 것을 열심히 내세웁니다.
셋째로, 이웃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결정적인 약점이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이는 사람은 많은 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없습니다. 정작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상의하고 싶는데 마땅히 상의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고난당하는 이웃이 있어도 함께 아픔을 나눌 줄 모릅니다. 이것이 본문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현대인의 문제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있고 그 사람 곁을 몇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 불행 당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예수님은 영

생을 묻는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공흠을 베푸는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임을 증거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 누가 이웃에게 공흠을 베풀 수 있는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33절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만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한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도 피하여 갔습니다. 또한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도 못 본 체 하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인이 그 곳을 지나가다가 죽어 가는 사람을 보았습니 다. 그는 그 사람을 보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겨'라는 말은 본

한 사랑 때문에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독일의 히틀러와 그 추종자들은 조국에 대한 사랑과 충성 때문에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해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한 신앙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9.11사건의 범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신앙 때문에 그렇게 자살 테러를 행한 것입니다. 사랑, 충성, 신앙 같은 것은 고귀한 것들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잔인한 행동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잔인한 행동을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남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질이나 시간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르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남을 위해 봉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참된 교육을 시키려면 먼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것이 남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마 12:7)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웃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동정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장차 성공하면 자기 배만 불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의 현실이 저렇게 부정부패가 많은 것은 남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 아는 편협한 교육정책이 가져온 결과인 것입니다.
2. 어떻게 공흠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용기와 책임을 가지고 선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34절에 사마리아인

때의 기분이 어떠했습니까? 설령 내게서 물질이나 시간의 손해가 났다 하더라도 왠지 모를 기쁨이 샘 솟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많을 때 우리의 삶은 윤택하고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 감사하며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남을 돕는 행동은 분명 세상을 아름답고 밝게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3. 왜 우리가 남에게 공흠을 베풀어야 하는가?
37절에 예수님은 청년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강도

였듯이 주님은 우리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쁨을 부어 새롭게 하셨습니다. 지상 최대의 만남의 행복, 그것은 예수님과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행복한 삶을 누립니다. 이 세상은 외로움에 지쳐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행에 느끼는 것은 먹을 양식이나 입을 옷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훈훈한 정이 그리워 불행에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리워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자의 친구가 되고 슬픔을 당한 자의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아내가 나에게 잘 대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도록 힘쓸 수가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불만을 느끼지 전에 먼저 내 자신이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하겠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일 때는 부부간에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좋은 아내가 되겠다. 내가 먼저 좋은 남편이 되겠다. 생각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상대방이 너무 짧게 느껴서 흐르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아도 아쉽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속 썩인다고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먼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자녀들 앞에 신앙의 본을 보이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성도가 나에게 잘해 주기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를 힘써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사람들의 좋은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누가 나의 좋은 이웃이냐에만 관심이 많았지 내가 다른 사람의 좋은 이웃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적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서 이웃으로 관심의 변화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받는 신앙에서 주는 신앙으로 바뀌기 바랍니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꼭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다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흠 베푸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공흠을 베푸는 사람은 만나면 왠지 반갑고 마음이 흐듯한 사람입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면 피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꼭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야 할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흠을 베푸는 이웃이 되라

(눅 10:25-37)

강도 만난 사람 때문에 자기의 가진 것을 희생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가진 것은 무엇이나 그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주리라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 주다가 자기들이 손해날 것을 생각했습니다. 즉,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죽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도와준 것입니다. 나보다도 그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느냐 아니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움키는 속성이 있어서 쉽게 남에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곳 미국에 사는 한인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컬럼비아대학에 지원했습니다. 그는 명문 고등학교 전체에서 수석을 했기 때문에 컬럼비아대학교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이유는 그가 중등학교 6년 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한 경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면접관이 왜 봉사 활동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봉사할 여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우리 학교는 당신 같이 남을 위해 봉사할 줄

은 가까이 가서 기쁨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른 날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환자를 부탁했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값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가한 여행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사본에 보면 새벽에 일찍 떠나며 그 사람을 부탁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떠나야 할 만큼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시간과 돈이 남아서 남을 돕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쁜 시간과 적은 돈을 쪼개어 남을 도운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살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도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별 가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솟아나는 선한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이론만이 아니라 말씀에 따른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통찰력이 있어도 그것을 실천하는 행동이 없으면 그의 지식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사람은 선행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은 길을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만난 자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진정한 이웃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오직 공흠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내 자신을 줄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주는 순간 이웃을 살립니다. 이웃이 사는 동안 또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웃이 없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삭막하고 외롭겠습니까?
Cast Away라는 영화에서 Fedex 직원인 주인공 톰 헵크스가 비행기 사고로 어느 바다에 추락하여 갇힌 채 목숨을 건져 무인도에서 살게 됩니다. 그는 약혼녀에 대한 사랑의 집념 때문에 몇 년 동안은 혼자 살면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데 너무도 외로워서 축구공에 눈 코 귀 입을 그려 넣고는 마치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공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뱀목을 만들어 섬을 탈출할 때 바다 물결에 공이 떠내려가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애를 써서 공을 부채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써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좋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은 길을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만난 자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진정한 이웃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오직 공흠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내 자신을 줄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주는 순간 이웃을 살립니다. 이웃이 사는 동안 또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웃이 없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삭막하고 외롭겠습니까?
Cast Away라는 영화에서 Fedex 직원인 주인공 톰 헵크스가 비행기 사고로 어느 바다에 추락하여 갇힌 채 목숨을 건져 무인도에서 살게 됩니다. 그는 약혼녀에 대한 사랑의 집념 때문에 몇 년 동안은 혼자 살면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데 너무도 외로워서 축구공에 눈 코 귀 입을 그려 넣고는 마치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공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뱀목을 만들어 섬을 탈출할 때 바다 물결에 공이 떠내려가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애를 써서 공을 부채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써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좋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은 길을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만난 자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진정한 이웃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오직 공흠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내 자신을 줄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주는 순간 이웃을 살립니다. 이웃이 사는 동안 또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웃이 없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삭막하고 외롭겠습니까?
Cast Away라는 영화에서 Fedex 직원인 주인공 톰 헵크스가 비행기 사고로 어느 바다에 추락하여 갇힌 채 목숨을 건져 무인도에서 살게 됩니다. 그는 약혼녀에 대한 사랑의 집념 때문에 몇 년 동안은 혼자 살면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데 너무도 외로워서 축구공에 눈 코 귀 입을 그려 넣고는 마치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공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뱀목을 만들어 섬을 탈출할 때 바다 물결에 공이 떠내려가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애를 써서 공을 부채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써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좋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은 길을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들어가는 말

교육학을 전공한 필자는 이민 후 여느 부모처럼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공립학교의 폐해를 익히 들어온 터라, 기독교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중,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학부모 참관시간을 통해 교육내용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의 숫자개념의 확립을 위해 공립학교 프리스쿨(Preschool)에서는 보통 공룡이나 짐승과 사물들을 숫자의 도구로 사용하지만, 기독교 학교 프리스쿨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날 수나 창세기의 창조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학교 교육의 전제와 출발점이 창조와 진화로 양분된다는 것을 표출해주는 간단한 실례가 됩니다.

있습니다.

2. 다음 질문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 국가운영의 공립학교가 과연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는 법과 질서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일을 하게 하려 할 때, 집단적인 강요라는 수단을 사용하지만, 교육은 법과 질서 유지의 성격과 달리 그런 강요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국가가 이끄는 공립학교 교육이 매우 중요한 교육이지만, 사립학교의 교육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국가가 아이들을 전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정신의 기독교 문화가 다소 경건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가능케 했지만, 점진적으로 공립학교가 기독교적 관점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면서 세속적인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성경 수업과 기도로 시작했던 학교 교육, 교실에 부착되었던 십계명이 다 포기된 세속화의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속적인 인본주의라는 사상 자체가 하나의 종교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모든 것이 기독교 신앙과 반대되는 이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결코 절대적 성경의 진리가 없으며, 오히려 세속적인 것 자체가 절대적 진리의 자리를 석권하고 말았습니다.

4) 그러면 세속적인 인본주의가 공립학교 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의 교육의 현장은 시대의 흐름을 따른 세속적 인본주의를 세뇌시키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5) 공립학교는 교육과정의 내용만큼 친구관계도 중요한데, 가운데 무엇을 배울까요?

경건한 성격을 갖추도록 훈련되어지고 교육되어지는 것이 학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지만 공립학교의 인본주의는 결코 이것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아이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약한 가치와 행동들, 마약이나 불법적인 성행위나 집단 폭력 등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보다 친구들의 말, 신념, 그리고 가치들을 더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립학교가 아이들에게 한없이 자율권을 부추길 때, 부모와 교사의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공립학교 교육에 대한 찬반 이해

기독교 학교에서는 가장 어린 유치원 교육부터 세속주의 사상인 진화론과 우연을 배제한 성경적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을 즉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필자가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면서 공립학교에 대해 연구한 일부분을 인용해서 간단히 기술하고자 합니다.

1. 국가가 운영하는 공립학교의 의무

성경에서 가족과 국가는 근본적으로 구분되지 않지만, 국가는 확장되어진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큰 가족인 국가는 아이들이 경건한 의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는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돕는 방식으로 그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국가가 위임한 공립학교는 아이들을 위한 전인적인 교육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의무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국가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능력에 대해 효율적이며 올바르게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해 비판적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본문에 공립학교에 대한 분명한 언급은 없지만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기에 많은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과 답을 통해서 공립학교 교육에 대한 찬반을 이해할 필요가

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국가가 주관하는 공립학교에서 이상적인 성경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국가가 죄로 타락한 아담의 가족의 연장이며, 그 큰 가족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공직자들에게 돌리켜서 교육을 하거나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립학교는 성경적 교훈과 상반된 최악의 경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립학교 교육은 신명기의 쉼(6:6-9)과 같은 교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딤후3:14-15)라고 말씀하는데, 과연 공립학교 교육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교육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상태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3) 공립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장려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답도 동일합니다. 법정에서는 이구동성으로 항상 국가와 종교간의 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한 종교를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기독교 교육이 공립학교에서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과거 케네디 대통령 전에는 청교도

만일에 세속적인 인본주의가 상대주의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학생들은 그곳에서 배움을 위해 노력할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의와 불의, 선과 악에 대한 분별과 그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사회의 불의와 사회의 악에 대해 무슨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비록 그들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내용을 학습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입장을 매우 자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공립학교의 교육은 자연주의적인 진화가 사실이며 성경의 기준은 낡고 진부하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 역사에서 기독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공립학교에서는 현재의 문화가 상대적으로 똑같이 좋은 것이며,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낙태는 여성의 권리이며, 성적인 질병을 막는 방법은 안전한 성관계(성교육, 피임교육)라는 것이 공공연한 교육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속적 사회는 동성애가 정상이며 이성애보다 오히려 더욱 보호받아야 할 인권인양 여론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런 흐름은 공립학교의 교과서의 교육내용까지도 그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공립학교

권위는 사라지고 자율권을 가진 아이들과 그들의 친구들이 모든 권위를 독자지함으로 시간이 더할수록 교육의 내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6) 공립학교의 교사들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립학교는 부모나 교회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 공립학교가 콘돔을 나눠주거나 낙태의 방법을 알려주어서 교사들 자신이 부모 위에 서고, 부모와 아이들을 갈라놓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립학교는 기독교에 반대하는 자들이나 세속적인 인본주의에 동의하는 자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나 홈 스쿨을 반대하거나 무시합니다. 더 나아가 홈 스쿨의 폐해를 지적하고 기독교 사립학교를 비판함으로써 아이들을 국가 제도의 영향권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공립학교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질문과 대답들을 고려한다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을 심각하게 숙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필자가 공립학교 교육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13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E-Mail: tisp0316@gmail.com

Q: 어떤 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예정하신 시간에 모여 오늘 이 모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문구를 자주 쓰시는 데 예정이라는 말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요? -토렌스에서 김 집사

A: 많은 분들이 이분의 기도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 사용은 신학적으로 볼 때 예정이라는 단어보다는 섭리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모였다"는 단어보다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오늘의 모임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린다고 함이 옳다고 봅니다.

예정은 주로 인간의 구원과 상관이 있다고 보면 좋습니다. 루이스 벌콕(Louis Berkhof)의 조직신학 책을 보면 1)이스라엘을 특별한 사역을 위해, 특별한 권리를 위해 선택하심(신4:37) 2)개인을 어떤 직무 혹은 특별한 봉사를 위해 선택하심(신18:5) 3)개인을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한 영광의 후사로 선택하심(마22:14 롬11:5)인데 주로 3번째의 구원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사

'예정' 은 인간 구원문제와 관련...일반적으로 '섭리' 사용

도바울은 엡1: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고 말했고 엡1:4-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라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장로교 주경 신학자였던 박유선 박사의 "개혁주의 교리학"이란 책을 보면 예정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예정은 기계적 필연성이나 인과법칙의 산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의적 결정으로 된 것입니다. 인생들에 대한 예정은 주로 2가지가 있는데 구원의 선택(Election)과 멸망의 유기(Reprobation)가 있습니다. 선택은 그 상대자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심이고 유기는 그 상대자가 죄인임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뜻이 그를 멸망하도록 버리심입니다. 또한 그 예정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한번 선택한 사람은 변치 않으시고 그 택한 자를 궁극적으로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s) 곧 끝까지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섭리'라는 단어는 예정과는 사뭇 그 사용하는 의미가 다릅니다. 박유선 박사의 개혁주의 교리학을 보면 1)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보존하심(preservatio) 2)그가 만물 안에서 이미 세우신 자연법칙을 따라 만물을 작동시키는 협력(concursus)과 3)그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왕으로서 통치(gubernatio)하심입니다. 특히 행 17장 24-29절의 말씀은 통치와 보존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칩니다. 1)우주 전체(시103:19) 2)물질세계(시104:14) 3)짐승들(시104:21) 4)민족들의 일(욥12:23) 5)인간의 출생과 인생의 운명(시139:16) 6)우발적이거나 하찮게 보이는 일들(잠16:33) 7)의인들에 대한 보호 8)하나님의 백성에게 쓸 것을 공급하심(신8:3) 9)기도응답(시65:2) 10)악인들의 죄를 들춰내고 벌하심 등입니다.

그러므로 예정은 주로 인간의 구원문제에 대해 말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구원문제외의 일반적인 일들은 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들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5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Table with 4 columns: 학부, 신학과, 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Table with 4 columns: 대학원, 목회학석사, 기독교교육학석사, 선교학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4) 신앙고백서 1부
5) 명함판 사진(2"x2") 2매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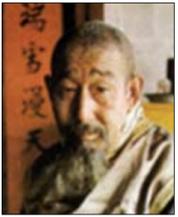
- 1) 원서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2) 원서접수마감 : 2015년 9월 4일(금) 오후6시
3) 입학시험 : 2015년 9월 5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4) 개강부흥회 : 2015년 9월 8일(화) - 10일(목) 저녁 8시
5) 문의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증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몽골의 두르베트(DURBET)



몽골의 두르베트족은 몽골 서부지역 부족들 중 하나이며, 현재 러시아의 국경 부근인 서부 몽골지역에 가장 많이 살고 있다.

한때 고향이었던 중국 신장성의 중가리아(Dzhuungaria) 지역을 떠났다.

1771년에 오이라트족의 대부분은 러시아의 독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대로 러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남아있다"라는 뜻의 "칼미크(Kalmuk)"로 불리게 됐다.

(zinjiang)이나 칭하이(Qinghai)지역, 그리고 몽골 서부에서도 많이 살고 있다.

삶의 모습

다른 몽골족들과 마찬가지로 두르베트족도 말(horses)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으며 또 승마를 즐기며 또한 대부분 말 외에 가축과 양을 기르기도 한다.

전통적인 두르베트의 가족은 부모와 자녀들로 이루어지는데, 아들은 결혼 후에 부모 집 가까운 곳으로 분가한다.

전통적 의상은 벨벳의 모자와 털 거운 겹옷, 두꺼운 솜을 넣고 누빈 긴 바지 스타일이며, 채두 번발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시가 두르베트족 전통문화의 중심이며, 돔브르(dombur)라고 불리는 2줄의 현악기를 반주에 맞춰 시인들이 서사시를 많이 불렀다.

신앙

여느 몽골족들과 마찬가지로 두르베트족 또한 애니미즘과 샤머니즘을 따르며 신과 대화하거나 주술 분 2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의 시기에 결혼을 한다.

물두더미에 마을의 정령들이 살고 있다고 믿으면서 이곳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의식을 벌인다.

필요로 하는 것들 두르베트족을 위한 의료장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물 공급이 제한적이며 열악한 위생상태와 영양불균형 및 알코올중독이 일반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까망게 탄 1500년 전 두루마리 성서 해독

새까망게 탄 1500년 전 성서 두루마리를 첨단기술의 도움으로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고 미국의 주시저널(Jewish Journal)이 20일 보도했다.



1970년 이스라엘 사해 인근 엔게디 지역의 고대 유대교 회당에서 AD 6세기에 제작된 성서 두루마리가 발견됐다.

지난해 이스라엘 회사 메르켈 테크놀로지 컴퍼니가 고해상도의 3D 스캐닝 기술을 이용해 두루마리의 디지털 이미지를 추출해냈다.

이שראל 연구진은 이 내용을 해독해 이 문서는 구약성경 레위기의 8절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שראל 문화재청 사해문서 담당 큐레이터 파나 소어는 "이번 해독은 사해문서 이후 고대 성경에서 이뤄진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며 "이번 문서는 사해문서와 10세기 '알렘포 사본'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수 아내 기록 파피루스, 현대에 위조된 것

예수에게 아내가 있었던 것처럼 기록된 2세기 후반의 파피루스 조각(사진)이 학자들의 오랜 공동연구 끝에 현대에 위조된 게 확실하다는 결론을 담은 6편의 논문이 새롭게 제시됐다.

이때 따라 그동안 나돌던

예수와 아내, 자손에 대한 온갖 풍문이나 추정에 대한 논란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의 성서학 권위자 '신약학(New Testament Studies·NTS)'은 이날 초 발간된 제61권 제2호에서 '예수 아내의 복음서'라고 주장된 파피루스 조각이 위조됐음을 증명하는 논문 6편과 사실을 게재했다.

NTS는 사실에서 "이 위조의 경우 통상 과학적 측정 결과가 진위를 판단하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는 점을 약속했다"며 "파피루스와 잉크 성분이나 고대 것이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 '예수 아내설'을 증명하려 했지만 '언제 썼느냐'는 점을 소홀히 다루면서 위조 소동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NTS는 사실에서 "이 위조의 경우 통상 과학적 측정 결과가 진위를 판단하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는 점을 약속했다"며 "파피루스와 잉크 성분이나 고대 것이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 '예수 아내설'을 증명하려 했지만 '언제 썼느냐'는 점을 소홀히 다루면서 위조 소동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NTS는 사실에서 "이 위조의 경우 통상 과학적 측정 결과가 진위를 판단하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는 점을 약속했다"며 "파피루스와 잉크 성분이나 고대 것이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 '예수 아내설'을 증명하려 했지만 '언제 썼느냐'는 점을 소홀히 다루면서 위조 소동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IS 터키지부, 이스탄불서 야외 기도회 개최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터키 급진 이슬람단체가 이스탄불에서 야외 기도회를 열었다고 터키 일간지 자만과 인터넷매체인 스포트니튀르키예 등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탄불 아시아지역의 야우회 장소인 외메들리 지역에서 IS 지지자 1천여명이 전날 이슬람 단서 성월인 라마단이 끝난 것을 축하하는 기도회를 개최했다.

터키의 IS 추종자들은 지난해 1월 경찰과 치안군이 합동으로 터키 내 알카에다 소탕작전을 벌였을 때 체포됐으며, IS 터키지부의 고위급으로 알려졌다.

터키의 IS 추종자들은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행사를 이스탄불에서 개최해 논란이 일었다. 터키 치안 당국은 이날 들어 터키 내 IS 소탕 작전을 강화해, 각지의 IS 지부에서 21명을 체포하고 IS 관련 웹사이트들의 접속을 차단했다.

터키의 IS 추종자들은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행사를 이스탄불에서 개최해 논란이 일었다. 터키 치안 당국은 이날 들어 터키 내 IS 소탕 작전을 강화해, 각지의 IS 지부에서 21명을 체포하고 IS 관련 웹사이트들의 접속을 차단했다.



터키의 IS 추종자들은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행사를 이스탄불에서 개최해 논란이 일었다.

터키의 IS 추종자들은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행사를 이스탄불에서 개최해 논란이 일었다.

터키의 IS 추종자들은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행사를 이스탄불에서 개최해 논란이 일었다.

터키의 IS 추종자들은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행사를 이스탄불에서 개최해 논란이 일었다.

람 단서 성월인 라마단이 끝난 것을 축하하는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 단체의 지도자적인 바이안족은 지난해 1월 경찰과 치안군이 합동으로 터키 내 알카에다 소탕작전을 벌였을 때 체포됐으며, IS 터키지부의 고위급으로 알려졌다.

터키의 IS 추종자들은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행사를 이스탄불에서 개최해 논란이 일었다.

터키의 IS 추종자들은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행사를 이스탄불에서 개최해 논란이 일었다.

터키의 IS 추종자들은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행사를 이스탄불에서 개최해 논란이 일었다.

들이 도우려 하는 동안 신발가게 건너편에 있는 중국 가게 밖에서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아민은 자신도 사망자 시신을 옮기느라 피에 흠뻑 젖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상인 알리 나시루는 숨진 채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았으며 상인과 소꿉객들이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도왔다

한편 부하리 대통령은 이날 이드 메시지를 통해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잘 알고 있다. 나는 많은 국가적 문제를 풀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이해,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9일 부하리 대통령이 보코하람 분쇄를 약속하며 취임한 뒤 보코하람 공격이 급증, 약 한 달 반 동안 700명 가량이 살해됐다.

무함마드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지난 13일 보코하람의 준동을 간파한 고위 군 사령관 전원을 해임함으로써 보코하람 세력을 분쇄하겠다는 추가적인 신호를 보낸 바 있다.

IS, 시리아군 참수하는 어린이대원 영상 유포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IS)가 16일 어린이 대원이 시리아군을 흉기로 참수하는 충격적인 동영상 인터넷을 통해 유포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IS가 그간 참혹하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동영상 수업을 공개했지만, 어린이 대원이 직접 참수하는 모습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S의 시리아 중부 흡스 주(州) 조직이 제작한 것으로 돼 있는 4분40초 정도의 이 동영상엔 열 살 남짓의 소년인 어린 대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이 뒤로 묶인 남성이 IS와 싸우다 잡힌 시리아 정부군 대위라고 주장했다.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IS)가 16일 어린이 대원이 시리아군을 흉기로 참수하는 충격적인 동영상 인터넷을 통해 유포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IS가 그간 참혹하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동영상 수업을 공개했지만, 어린이 대원이 직접 참수하는 모습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S의 시리아 중부 흡스 주(州) 조직이 제작한 것으로 돼 있는 4분40초 정도의 이 동영상엔 열 살 남짓의 소년인 어린 대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이 뒤로 묶인 남성이 IS와 싸우다 잡힌 시리아 정부군 대위라고 주장했다.

IS의 시리아 중부 흡스 주(州) 조직이 제작한 것으로 돼 있는 4분40초 정도의 이 동영상엔 열 살 남짓의 소년인 어린 대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이 뒤로 묶인 남성이 IS와 싸우다 잡힌 시리아 정부군 대위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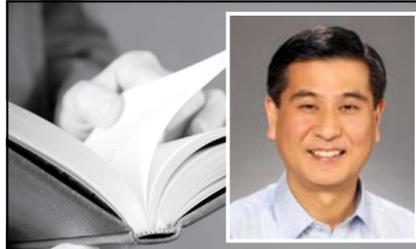
IS의 시리아 중부 흡스 주(州) 조직이 제작한 것으로 돼 있는 4분40초 정도의 이 동영상엔 열 살 남짓의 소년인 어린 대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이 뒤로 묶인 남성이 IS와 싸우다 잡힌 시리아 정부군 대위라고 주장했다.

IS의 시리아 중부 흡스 주(州) 조직이 제작한 것으로 돼 있는 4분40초 정도의 이 동영상엔 열 살 남짓의 소년인 어린 대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이 뒤로 묶인 남성이 IS와 싸우다 잡힌 시리아 정부군 대위라고 주장했다.

IS의 시리아 중부 흡스 주(州) 조직이 제작한 것으로 돼 있는 4분40초 정도의 이 동영상엔 열 살 남짓의 소년인 어린 대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이 뒤로 묶인 남성이 IS와 싸우다 잡힌 시리아 정부군 대위라고 주장했다.

IS의 시리아 중부 흡스 주(州) 조직이 제작한 것으로 돼 있는 4분40초 정도의 이 동영상엔 열 살 남짓의 소년인 어린 대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이 뒤로 묶인 남성이 IS와 싸우다 잡힌 시리아 정부군 대위라고 주장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NY, NJ, and Hawaii. Includes sections fo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and various local church listings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 times.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28)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 교회 - 교부 (11) 변증 교부, 알렉산드리아 학파 (1)

이슬람국가(IS)의 극심한 횡포가 지속되고 있다. 세력의 확장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주저하지 않는다. 얼마 전 그들은 반역사적인 행위를 선택했다. 소중하고 대우를 받고 있던 고대 유물을 파괴한 것이다. 그들이 이라크 북부 모술에서 망치와 드릴로 석상과 석상을 마구 부수는 장면이 공개되었다. 더욱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동시에 벌어졌다. 모술의 도서관에 소장된 희귀한 서적과 문서를 무려 8천여 점이나 소각한 것이다. 물론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다.

서기 642년, 무슬림 군대가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한 후, 그 당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무참하게 파괴하였다. "만약 그 책들이 코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우린 그 책이 필요가 없고, 만약 그 책이 코란에 어긋나면 모두 없애버려라!"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소장되었던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대한 자료가 사라져버렸다.

질문: 초대 교회에서 활동했던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특징과 대표적 교부는 누구인가?

1) 교회 역사를 보면...

알렉산드리아 학파 알렉산드리아(Alexandria)는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세계를 정복하여 대제국을 건설하였던 알렉산더 대왕(365BC-323BC)이 세운 도시이다. 그는 자신의 이름

을 붙인 위대한 도시를 건설하려 한 것이다. 비록 32세에 말라리아로 갑자기 사망하여 도시의 완성을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소원대로 다 방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계의 중심 도시로 자리를 잡았다.

이 도시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 가운데, 지식 중심의 헬라의 철학과 신앙 중심의 유대교 사상이 자연스레 만났다는 것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물과 기름과 같은 두 전통이 함께 만난 결과, '알렉산드

리아 학파'라는 독특한 신학 전통이 생겨난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을까?

아테네를 중심으로 발전한 헬라 철학은 알렉산드리아로 그 중심지를 옮기게 되었다. 또한 가장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이곳에 집결하여 살게 되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

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필로 - 기초를 놓다

필로(Philo, 20BC?-50AD?)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 예수 및 사도들과 동시대의 인물이다. 그는 헬라철학과 유대교 사상의 접촉을 연구함에 있어서, 철학적인 방법론으로 창조주 하나

헬라철학의 로고스 사상과 히브리 사상 결합시킨 필로의 알레고리 해석 경계 성도의 삶과 규범에 적용되는 실제적 매뉴얼 성경을 임의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 70인경이 번역된 곳이기도 하다.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은 세속 철학이 기독교의 진리를 잘 정리하고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에게 철학은 성경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였다. 신학과 철학의 관계에 대한 고민은 기독교가 출범한 이후 거의 모든 시대에 논쟁거리가 되었다. 거부 또는 수용으로 크게 나눌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신학과 과학 중에 무엇을 출발점을 삼느냐에 따라 전

님을 해석하려 하였다. 헬라 철학의 특징인 로고스 사상을 히브리 사상과 결합한 것이다. 필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문자로 기록된 성경 뒤에 숨어있는 영적 의미였다. 그 결과 그는 언어의 표현이 지닌 한계를 넘기 위하여 알레고리(Allegory)적 해석, 즉 은유적인 방법 또는 우의적 표현으로 뜻을 전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알레고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에게 영향을 받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또는 오리겐(Origen)과 같은 교부들에게서 분명하게 발견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알레고리는 필로가 스도아 철학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사용한 것이다. 알레고리는 은혜롭다. 딱딱한 문자가 줄 수 없는 '그것'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자연히 그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확대하거나 변형하여 묵상하고 해석하였다.

예를 들어보자. 그는 가인과 아벨의 다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의 갈등을 드러낸다고 해석하였다. 가인은 말은 유창하게 하지만 내용이 없는 사람, 아벨은 말은 잘 못하지만

재하는 육체의 지배를 벗어나 영혼이 완전히 자유를 누리는 고상한 정신의 세계에 도달하는 것이다. 알레고리는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삶이 자연스럽게 이어주었다.

그러나 알레고리의 사용은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 분명히 읽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알레고리는 문자를 해석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상상력이 반영된다. 필로의 경우 문자적 해석과 알레고리적 해석을 겸용하였기에 두 해석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는 독자들을 그릇 인도할 수 있다. 필로가 기록한 아브라함에 관한 글이 대표적이다. 그는 창세기 12장 1-3절의 내용에서 대단히 많은 알레고리를 끄집어낸다. 각 문장과 단어, 섬세한 개념을 놓치지 않는다. 그 결과, 무엇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며 의미인지 혼동을 준다. 성경이 문자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유대인이었던 필로는 성경을 중심에 두고 있지만, 그 내용이 지나치게 독특한 알레고리를 소개하였다. 그의 해석은 분명 그 당시 유대교 랍비의 전통과 많이 달랐다. 그는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현대적 의미와 경험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였지만, 성경 해석에 있어서 후대 알렉산드리아 교부들은 물론 현대 교회까지도 혼동을 주었다. 필로는 예수 또는 기독교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다.

(9면으로 계속)



정말 그랬을까? -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13)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었을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지 않고 그 성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싸우지 안하고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전에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다. 그러자 "아멘"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여리고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이다. 지금부터 1만년전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성을 쌓고 살았던 도시이다. 지금도 BC 8500년 전에 세워진 망대가 남아있다. 크기는 8.5에이커 정도 된다. 인구는 2천명정도가 되었을 것이다(지금 4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 처음 성을 쌓은 것은 주전 8500년경이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 무너졌다 다시 쌓았다 하였다.

이스라엘이 쳐들어갔을 때 여리

고 성은 이중 벽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내벽과 외벽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다. 성의 두께는 내벽이 4미터, 외벽은 2미터였다. 높이는 10미터 정도가 되었다. 아래는 돌로 쌓아올리고 위는 흙으로 쌓은 토성이었다.

어떤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처럼 역시 대단한 성인가? 아니면 '아니, 별거 아니잖아?'하는 생각이 드는가? 여리고 성이 우리는 가나안에서 가장 큰 성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다른 성들에 비하면 작은 성에 속한다. 당시에 가장 큰 성이었던

하술에 비하면 5분의 1도 안된다. 하술에는 3-4만명이 살고 있었지만 여리고에는 2천명밖에 살고 있지 않았다. 더군다나 여리고는 평지에 위치하고 있다. 방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지리적으로 매우 불리한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성도 이중으로 되어있긴 했지만 철옹성이 아니라 흙과 돌로 쌓은 토성이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과 여리고의 전투 장면을 그려 보자. 여리고는 성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여리고가 그렇게 강대한 성읍이었다면 성문을 활짝 열고 나와서 적군을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닌가? 성 밖에서는 이스라엘 군이 에워싸고 있었다. 이스라엘 군인은 60만명이었다(민26:54).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60만명의 장정이 나오지 않았는가? 중간에서 다시 한번 병적 조사를 했을 때도 다시 한번 병적 조사를 했을 때도 숫자는 비슷했다. 60만명이 믿어지지 않으면 3만명이었다고 생각

해보라(왜냐하면 아이성을 공격할 때 3만명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그러면 게임 끝이다. 안에는 2천명이 있고 밖에서는 3만명이 에워싸고 있다. 그러면 보나마나 전쟁 아닌가?

여리고 성으로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이 성을 함락시킬 때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는가? 그녀도 여리고 성이 함락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수2:9-11). 그래서 싸울 엄두도 못 내고 전의를 상실하고 문을 걸어 잠갔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았다. 100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민31:5) 10에이커도 안되는 작은 성을 한 바퀴씩 돌려면 하루 종일 돌고도 모자랐을 것이다. 100만명이 1주일 동안 그렇게 돌았으니 그 성이 온전하게 남아날 리가 없지 않은가?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으셨도 무너지게

될 판이었다. 이렇게 여리고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게임이 안되는 싸움이었다. 싸우고 말고 할 필요도 없는 전쟁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일찌감치 문을 굳게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을 무너뜨리지 말고 그냥 성 주변을 돌기만 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리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르르 몰려가면 한 시간도 되지 않아서 다 무너뜨릴 수 있는데, 왜 일주일씩이나 기다리라고 하신 것일까? 그냥 문을 쳐부수고 들어가면 간단하게 끝날 것을 가지고 왜 번거롭게 성을 돌기만 하라고 하신 것일까?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찼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일주일 동안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신 것인지도 모른다.

(9면으로 계속)

PRINTING & PROMOTION

프린팅 & 프로모션

BOOKS KOREANA

한국서적

BOOKS KOREANA, INC

월-토 : 오전 9:30-오후 8:00

각종 인쇄물과 다양한 판촉물 교회 행사에 필수!!

판촉볼펜

주보/헌금봉투

교회책자

단체 T셔츠

책 만들어 드립니다.

각종 상패

타올

머그컵

교회/매장/기타단체

전화: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상담 환영!

교회에서 행사할 때 수련회 단체 T셔츠 한글학교 단체복 원하는 디자인으로 해드립니다.

이메일 상담과 주문

bookskorea@gmail.com

모라비안(Moravian)이라 불리는 사람들 (2)

박시경 박사
(그레이스신학대학원 한국프로그램 디렉터)



이런 존 후스의 신앙사상은, 그 당시 로마카톨릭교회에서 중요 재 정 수입원으로 강행하고 있던 면 죄부(Indulgence) 판매에 반감을 갖고 있던 체코의 깨어있는 신앙 인들을 결집시켰습니다. 비록 저 들의 지도자였던 후스는 처참하게 화형 당해 그 재가 찰스 강물위에 뿌려졌지만, 그의 경건주의적, 개 혁주의적 신앙사상은 체코인들을 흔들어 깨웠고, 그들 중 일부가 모 라비안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카톨릭교회를 반대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단으로 정 죄 받아 재산몰수(개신교 교도들 의 재산은 몰수되어 카톨릭교도 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투옥, 공개 처형 같은 끔찍한 형벌이 다반사 로 일어났던 시대였기 때문에, 일 단의 모라비안들은 무서운 박해

할 중요한 사건은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1517년 독일의 루 터의 종교개혁, 1648년 베스트팔 렌조약, 1789년 프랑스 혁명, 1917 년 러시아 혁명...” 여기에서 베스 트팔렌 조약으로 종전된 30년 전 쟁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계사 적 사건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772년 거의 빈손으로 피난길에 오른 일단의 모라비안들은 사소니 라고 불리는 현재 중서부 독일에 해당하는 베르텔스도르프(Bert ersdorf)의 헤른후트(Hernhut, 주 님의 파수꾼이라는 뜻의 독일어) 지역 에 있는 진젠도르프(Zinzen dorf) 백작의 영지에서 정착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진젠도 르프는 독일의 개혁자 필립 스페 너(Philip Jacob Spener), 프랑케 (Augustus Hermann Francke)와

모라비안 선교

모라비안들에 관한 두 번째 이야 기를 써 내려가기 전에 먼저 고백 할 것은 소위 80여년의 전통을 가 진 미국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선 교역사를 강의하는 제가 모라비안 들의 실체를 피상적으로밖에 몰랐 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모라비안들 에 대해 체코 출신 열렬한 신앙인 들이 박해를 피해 독일로 와서 선 교에 거의 몰입한 사람들 정도로 만 알고 있었습니다. 토기장이, 무 닌 파는 사람, 노예가 되어 신발 두 켤레만 있어도 선교지 현지인들에 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감상주의적 선입관 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 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 국의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

백작은 자신의 영지 일부의 토지 를 가져가 제공하면서 300여명에 이르는 모라비안들에게 정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모라비안들은 집을 짓고, 토지를 개간하고, 교회를 세워 자 신들이 그토록 갈구하던 대로 마 음껏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젠도르프 백작 이라는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말 입니다. 후일에 이곳은 헤른후트 (주님의 파수꾼)으로 불리며 300 여년동안 독일 기독교인들의 영적 고향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저들은 영적으로 '일용할 양식'에 해당하는 '로송'(Losung; '해결책'이라는 독일어)이라는, 일 종의 말씀 중심의 기도집을 진젠 도르프를 비롯한 공동체 지도자들 이 경건 훈련서를 매일 작성해 전 체 공동체에 전했습니다. 이 책은 현재까지도 모라비안 형제들에 의 해 발간되고 있으며 세계 약 60개 국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행동하는 신학자 디트 리히 본 헤퍼(Dietrich von Hoef fer)같은 신학자도 매일 로송을 읽 으면서 히틀러 나찌 정권과 맞서 는 자신의 행동의 지침서로 삼았 을 정도로 독일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묵상집입니다.

모라비안들의 행적에 대해 살펴

독일의 경건한 지도자 진젠도르프 도움으로 생활 유지 셀 그룹의 시조...지도자 세워 성경적 경제 공동체 구현

를 피해 이웃 나라인 독일의 사 소니(Saxony: 현재 중서부 독일) 지방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저들 은 유럽의 거의 대부분, 특히 독 일을 초도화 시킨 잔혹한 30년 전 쟁(1618-1648년에 일어난 최초의 종교전쟁, 최초의 국제전쟁으로 유 럽에서 로마교황청의 지원을 받은 카톨릭 국가들 대부분과 개신교 교도들 사이에 벌어진 처참한 종 교전쟁으로 신교 개혁파들이 구교 카톨릭에 패배한 전쟁. 1648년 독 일의 베스트팔렌 Westphalia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종전됨. 이 조약으로 인해 신성로마제국은 사실상 붕괴되고 유럽의 영토가 재편되면서 스위스가 독립을 인정 을 받게 되고, 유럽의 세력적인 강 대국이었던 스페인이 전력을 잃게 된 조약. 교황의 권위가 제한되고, 황제의 권위가 회복된 조약. 유럽 의 정치, 경제, 종교의 판도를 개혁 한 조약)의 피해자들로 보헤미아 지역에서만 3,600여명이 좀 더 종교 적 자유가 보장된 이웃 나라인 독일로 피난을 갔습니다. 참고로 2015년 6월 17일자 동아일보 인터 넷판은 다음과 같이 30년 전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기억해야

더불어 세운 할레대학(University of Halle)으로부터 개혁주의 운동 을 주도하던 독일의 귀족 가문 출신의 백작이었습니다.

잔혹한 30년 전쟁의 후유증으 로 독일의 교회는 영적 무기력, 지 도력 부재, 도덕적 타락 등으로 인 해 애초 마틴 루터가 추구했던 종 교개혁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면 서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의 일부 신앙 인들은 자신들의 신앙 갱신을 위 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 고, 그러한 운동이 몇몇 지도자들 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그들이 바 로 독일 경건주의의 선구자들이였 습니다. 그 선구자 중 한명이 진젠 도르프 백작이었으며 그는 독일에 있는 그의 영지로 피난온 모라비 안의 후견인을 자처했습니다. 진젠 도르프는 체코에서 건너온 믿음의 피난민들인 모라비안들에게 토지 를 허락하면서 저들의 새로운 삶 이 독일에서 가능하도록 길을 열 어준 독일 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면밀주도한 섭 리는 독일의 한 경건한 지도자를 통해 이름도 없는 나약한 모라비 안들이 주축이 된 몇 세대 후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고 있었습니다.

1761-1834)에게 선교적 비전을 심어준 사람들이 바로 영국으로 건너간 모라비안들이었다는 사실 정도였습니다. 이제 저들에게 진 마음의 빛을 갠 심정으로 제 2화 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인간의 상상 력을 초월하고도 남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농민들로, 최소한의 교육만 을 받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늘 가진 자들과 배운 자들을 부끄럼 게 하시니 말합니다. 모라비안들이 그랬습니다. 고향인 체코의 모라비 아 지방에서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어보겠다는 믿음 때문에 카톨릭 교회 권력자들로부터 갖은 고초를 겪고 가진 재산을 몰수당한 후 저 들은 빈손으로 독일 땅 진젠도르 프 백작의 영지인 베르텔스도르프 (Bertersdorf)로 귀양 오듯이 옮겨 왔습니다. 마치 파산을 당한 나오 미와 롯을 위해 보아스 같은 능력 있는 후견인을 준비해 놓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파산당한 피난민 같 은 모라비안들을 위해 유능하고 덕망 있는 신앙인이자 독일의 백 작 진젠도르프(Zinzendorf)를 준 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어린 것들을 데리고 일용할 양 식조차 없는 저들에게 진젠도르프

불수록 제 마음이 부끄러워지고 잔잔한 감동을 감출수가 없습니 다. 소위 미국 주도의 교회성장학 과 한국교회 성장학에서도 셀 그 룹에 대한 가치와 효과에 대해서 수많은 논문과 이론들이 발표되었 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 셀 그 룹의 시조가 바로 모라비안들이었 다는 사실입니다. 모라비안 교회 역사가들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라비안 공동체는 작은 규모 로 나누어져-오늘날 우리는 이 런 작은 규모의 공동체를 셀 그 룹이라 부른다-1727년 7월에 처 음으로 시작되었다. 이 그룹은 나 이, 성별, 결혼여부에 따라 'choir' 라고 불리는 더 작은 소그룹으 로 나누어져...지도자를 중심으로 개인일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예배 와 노동, 전도와 선교훈련을 받았 다”(Moravian Church in Amer ica, p.59 참조).

즉, 우리가 지금 알고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300여년 전에 저들도 다 알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저 들은 교육수준은 낮았어도 좋은 자질을 갖춘 지도자들을 세워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모범적으로 이 끌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여호수아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이름조차 '여호와와 구원자'입니다. 노예근성에 찌든 200만을 이끄는 광야 사역이 모세의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에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전환 훈련 과정이었다면, 여호수아에게는 의지할 아무런 기별 세사적 조건이 없던 무에서 출발하여 그저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신이 감동하여 그가 함께하시면 무슨 일이 가능한가를 똑똑히 체험하는 여러 면모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훈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 제 아무리 불가능한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믿음만 붙들고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행동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비취불만한 아무런 능력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얼굴 쳐박고 고민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자신이 지켜보며 만난 하나님을 의지해 말씀을 차도삼아 제사장들을 앞세워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그저 믿음으로 차근차근 가나안 정복에 임합니다.

여호수아와 관한 어느 성경을 찾아보아도 그 고고한 우물쭈에 빠져 머리 싸매고 드러내는 자기와의 싸우는 소모전은 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설령 두려움이 덮치고 과연 내가 해낼 수 있나? 라는 진실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단순한 자신 없는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공격해 와도 “두려워 말라. 모세와 함께 한 것같이 너와 함께한다. 내가 밟는 땅을 네게 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마음의 중심을 말씀으로 기운 차리고 그저 앞으로 앞으로 전진합니다. 다소 차질이 생겨 작은 아이성 점령에 실패해도 곧 실패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를 칼같이 찾아내어 정정하고 믿음을 세워 모두를 이끌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여호수아의 심령은 어떠했을까요? 가나안을 탐지하고 돌아와 과연 젖과 꿀이 흐른다고 보고하다 자신들의 약함이 크게 보여 절망 끝에 화가 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맞아 죽 임을 당할 정도로 압박을 받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할 수 있다는 청결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그 믿음대로 모세가 죽 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당신은 모세와 같이 따르라 하고 한 목소리로 화합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가능 하다는 동일한 믿음으로 통일돼 가나안 정복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믿음의 승리를 끌어냅니다.

매 집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기로 싸우며 승리토록 전적 으로 힘을 보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깊이 찬양했는지, 승리보다 오히려 함께하시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얼마나 감격의 예배드렸는지, 그 깊은 감흥의 예배심 이 이 심정에까지 깊이 감동으로 파도칩니다.

여호수아는 임종을 두고 날마다 자신의 기쁨이든 씩씩이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저들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범사에 말씀대로 순복하여 천신만고 끝에 임성한 가나안 땅에서 한눈팔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여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당부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믿음대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 것인지? 어쭙잡은 세상의 것에 연연 해 땅에 속한 것에 연연하다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날 것인지는 오 늘도 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 듣는 것이 삶의 최 우선 순위에서 알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자임을 여호수아의 삶에서 확실히 배웁니다. 하나님 신에 감동된 믿음의 순종 행동과 여호수아가 오늘 내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붙순종은 저주의 삶, 하나님께 순종은 축복의 삶이다. 너희의 거하는 땅에서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 여호와를 택하려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인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조성근목사 기도성회 일정

조성근 목사 방송설교 보기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튜브 조성근 목사 '세상을 이기는 지혜-솔로몬'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차 검색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20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1일 ~ 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1월 11일 ~ 20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기도성회 1월 21일 ~ 30일 갈멜산금식기도원(미국) 1월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미국)	2월 1일 ~ 7일 LA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목사) 2월 8일 ~ 1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월 15일 ~ 21일 GST 신학생훈련(3차) 2월 22일 ~ 28일 사울신학교(배만석목사) 2월 2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월 30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월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3월 1일 ~ 3일 예수비전교회(박정훈목사) 3월 4일 ~ 6일 총신대학교 신명수교회 3월 7일 ~ 11일 (합동)태백시청 연합성회 3월 12일 ~ 16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3월 17일 ~ 2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3월 22일 ~ 26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3월 2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4월 6일 ~ 8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4월 9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4월 12일 ~ 14일 안산 시민교회(이상관목사) 4월 15일 ~ 17일 캠퍼스대학교 대학원 재물 4월 18일 ~ 20일 신도철 철야기도회(GST)	5월 1일 ~ 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5월 11일 ~ 20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5월 21일 ~ 30일 평화의동산 기도원(피종진목사) 5월 31일 평화의동산 기도원(피종진목사)	6월 1일 ~ 4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6월 5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6월 9일 ~ 11일 온양김리교회(노광현목사) 6월 12일 ~ 14일 예우교회(유병희목사) 6월 15일 ~ 17일 (합동) 남수원교회 교사강습회 6월 18일 ~ 2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7월 6일 ~ 1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7월 19일 ~ 23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7월 24일 ~ 28일 신도철 철야기도회(GST) 7월 29일 ~ 31일 천마산기도원(유광석목사)	8월 3일 ~ 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8월 7일 ~ 12일 나사렛성결교단 연합성회 8월 13일 ~ 17일 GST 신학생훈련(3차) 8월 18일 ~ 2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9월 1일 ~ 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9월 5일 ~ 8일 침윤교회(강대석목사) 9월 9일 ~ 11일 제자교회 (유종국목사) 9월 12일 ~ 17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10월 1일 ~ 23일 풍성교회(박경순목사) 10월 24일 ~ 27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11월 1일 ~ 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11월 10일 ~ 12일 평화의동산 기도원(피종진목사) 11월 13일 ~ 15일 침피중앙교회(김영우목사) 11월 16일 ~ 18일 오산리 최자실기부 금식기도원 11월 19일 ~ 21일 우리들교회(김호경목사) 11월 22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1월 26일 ~ 28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11월 29일 ~ 30일 신학생 철야기도회(GST)	12월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2월 11일 ~ 13일 평화의동산기도원(피종진목사) 12월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2월 18일 ~ 25일 드림교회(김영호목사) 12월 26일 ~ 31일 신학생 철야기도회(GST) 12월 31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동성애 성교육 방지탄원서 서명운동

백악관 We the People에 8월 2일까지 10만명 필요

지난 6월 26일 미현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벌어진 동성결혼 합헌 결정에 맞서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동성애 성교육 방지를 위한 탄원서가 7월 3일부터 백악관 청원사이트인 We the People에서 실시 중에 있다.

이번 탄원서는 백악관을 상대로 동성애 성교육을 부모의 허락 없이 절대로 시킬 수 없다는 내용이 담

겨져 있다. 탄원서 서명방식은 백악관 청원사이트 We the People 사이트에 개설된 <https://petitions.whitehouse.gov/petition/keep-our-kids-away-homosexual-education>에 들어가서 이름과 이메일주소, 그리고 zip code를 작성하고 'SIGN NOW'를 누르면 된다.

그리고 본인 이메일에 가서 'We

the People'에서 온 이메일을 연후 'Confirm your signature'를 누르면 최종서명이 완료가 된다.

이번 탄원서 작성 기간은 오는 8월 2일까지이며 이날까지 10만명이상이 서명하면 백악관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서명은 7월 20일 오후 2시30분 현재(서부시간) 19,640명이 서명했다.

(박준호 기자)



제13회 예성 미주지역총회 서부지방회에서 신임임원들이 기념촬영하고있다

예성미주총회 새 서부지방회장에 강양규 목사

제13회 미국 서부지방회, 부회장 김영일 목사

예성 미주총회 미국 서부지방회는 지난 13일 남가주 새인약교회(담임 강양규 목사)에서 서부지방회 정기 지방회를 개최했다.

이번 서부지방회에서는 △효과적인 개척교회 지원방안과 △회원 상호간의 친밀한 관계에 중점을 두면서 아울러 △교회연합성회 및 연합사업에도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해 부흥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정기 지방회에서 선출된 신임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지방회장 강양규 목사(남가주 새인약교회) △부회장 김영일 목사(섬김과나눔교회) △서기 오병익 목사(남가주 벨벳교회) △부서기 이용남 목사(은혜세계성교회) △회계 손민호 목사 △부회계 조성우 목사.

지방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회장 강양규 목사(213-434-1083)에게 하면 된다.

(기사제공: 예성 미서부지방회)



국제하나사랑재단 주최 소향 자선음악회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감사한인교회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소향이 관객들의 손을 잡아주며 노래하고 있는 모습

“북한아동 질병치료, 영양 개선”

국제하나사랑재단 소향 자선음악회 성황

국제하나사랑재단(회장 임덕순 장로)가 주최한 북한 어린이들의 질병치료와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자선음악회가 19일 오후 7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자선음악회는 본 재단 홍보 대사이자 한국의 '나는 가수다'와 '불후의 명곡' 등에서 맹활약한 가수 소향이 나서 공연을 했다.

소향은 "LA분들을 진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다. 북한을

돕는 것이 씨앗이 돼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이루실 것 같은 마음이 들어 뿌듯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대에 섰을 때 관객들의 눈물을 보게 됐다. 그들이 왜 내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릴까 의아했지만, 힘든 삶속에서 저의 노래를 들으며 위로받고 싶다는 말을 하는 듯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관객들의 눈빛이 격려가 되고 함께 기도도 동참하겠다는 마음이 느껴져 좋았다"고 말했다.

소향은 이날 '내 하나님', '나비', '인연', '꽃밭에서', 'You Raise Me Up', '하늘을 달린다' "Bridge over trouble woter",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등을 불렀으며 앵콜곡으로 '홀로아리랑'을 불렀다. 한편 소향은 18일(토)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 24일(금) 디사이플교회(담임 고현종 목사) 그리고 25일(토) 오후 7시 아름다운교회(담임 고승희 목사)에서 각각 공연했다.

(박준호 기자)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7면에서 계속)

그러나 그의 알레고리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는 고리가 되었다. 향후 성경을 문자적이며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안디옥학파'가 등장하여 '알렉산드리아학파'와 갈등 구도에 놓이게 된다.

다. 어떤 부흥사 또는 신학자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은 그 근본과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와 재창조를 가능하였다.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그 태도가 바로 나의 신앙의 현주소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성경은 문자화된 '기독교의 경전'이 아니다. 성도의 삶과 규범에 적용되는 실제적 매뉴얼이다. 그렇다고 성경을 내 맘대로 해석하려들지 말아야 한다. 현대인들은 감동에 목 말라하고 있다. 울컥한 것을 은혜로

착각하고 있다. 성경이 지닌 깊은 의미는 지루하여 멀리하려는 경향이 짙다. 성경에 기록된 기독교의 진리 또는 역사는 특정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를 빨리 말해달라고 재촉한다. 그것도 모자라 내 임의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눈다고 한다. 값싼 은혜와 쉬운 신앙생활의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그 출발점은 성경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메일: covenantcho@yahoo.com

정말 그랬을까?

(7면에서 계속)

이스라엘이 도무지 그들의 힘으로는 난공불락의 철옹성인 예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시기 위해 성 주변을 돌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그들의 힘으로 충분히 예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그냥 성을 돌기만 하라고 하셨다.

왜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작전 지

시를 내리신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이 그들의 힘으로 예리고 성을 정복했다는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예리고 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있어야만 했다. 그들은 그들이 싸워서 그 성을 탈취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다.

오래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지는 것이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보여 주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방법으로 예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했다고 우쭐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못하게 하실 때가 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시46:10).

이메일: jinlee1004@yahoo.com



크리스천 법률칼럼



이경희 변호사

종교비자와 영주권

종교비자(R-1)을 취득하고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미국에서 종교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는 종교비자를 받은 이후에 2년간의 개인소득세 보고서가 준비되면 종교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민국의 종교이민 심사가 갈수록 까다롭다. 고객과 종교이민 상담을 하다보면 이민국 심사를 통과하기 힘든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

종교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종교이민으로만 영주권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취업이민으로도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다.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후 일년간 일할 수 있는 OPT로 먼저 사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종교비자를 받고 2년이 되지 않더라도 OPT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나면 종교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학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현재 공부를 계속하는 분들은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종교단체를 통해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은 미래약속으로 진행하게 된다. 즉,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더라도 바로 스폰서 단체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영

갈수록 까다로운 종교이민, 스폰서가 관건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종교직 종사자는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3순위로 달리 현재 문호가 열려 있어 취업이민 1단계인 노동 승인(Labor Certificate)이 통과되면 2번째 단계인 이민청원(I-140)과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I-485)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종교단체가 종교이민을 후원하지 않고 사기업과 같이 일반 취업이민을 스폰서 할 경우에는 이민국은 종교단체도 일반 사기업과 똑같은 잣대로 심사를 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부에서 책정하는 평균임금(Prevailing wage)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한다. 따라서 종교단체의 재정능력이 관건이다. 종교단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니므로 일반 취업영주권을 후원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다.

종교이민 신청자는 같은 교단의 일원이어야 하고 최소한 2년 이상 그 교단을 위해 사역해 왔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종교비자(R-1)를 받은 이후 2년간 사역하면서 개인 소득세 보고를 한 이후 종교이민을 신청한다. 하지만 미국에서 신학

주권을 받으면 오랫동안 일한다는 약속으로 신청하게 된다.

요즘 종교이민 케이스를 담당하면서 느낀 점은 이민국에 청원서(I-360)를 제출하면 까다로운 추가서류 요청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민국은 종교이민을 신청한 사람이 맡게 될 직무, 경력, 해당 종교단체에서 사역비를 받는 사람의 수, 종교단체의 규모 그리고 종교단체의 최근 변화기록 등을 검토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민국에서 종교이민을 스폰서 한 종교단체로 감사가 나온다. 감사에 대비하여 미리 철저히 서류를 준비해 놓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감사를 무난히 통과하지 못해 케이스가 거절되거나 감사 후 결과를 오랫동안 기다리는 분들도 적지 않다.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가 힘든 상황에서 종교단체를 통해 일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시 해당 종교단체의 재정규모가 중요하므로 승인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조언 받을 필요가 있다.

▲문의: (213)385-4646



성경적상담학회 주최 제2회 미주성경적 상담 컨퍼런스가 부에나파케일교회에서 열렸다

성경적 상담, 삶과 사역에 도움

성경적상담학회 주최 제2회 미주 컨퍼런스

성경적상담학회(대표 전준준 목사) 주최 제 2회 미주성경적상담 컨퍼런스가 16일부터 21일까지 부에나파케일교회(담임 노정해 목사)에서 열렸다.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실천신학 교수이자 목회상담학박사인 전준준 목사는 "지난 1월 탈북신학교에서 열린 탈북가정사역 컨퍼런스에 강사로 참여해 강화를 받았을 때 컨

퍼런스 개최 제의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아메리칸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컨퍼런스를 열고 이번엔 두 번째 컨퍼런스를 열게 됐다"고 컨퍼런스 개최동기에 대해 언급했다.

전 목사는 "성경적 상담은 심리학적 상담과 정신분석학 상담, 그리고 로저스 상담학과 구분된다. 성경적 상담학은 성경적인 원리를 존중

하고 성경적 세계관과 인간관을 바탕으로 상담을 배우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경적 상담에 대해 상담할 때 성경을 인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나 성경적 상담은 상담단계가 성경적인 세계관에 입각해 진행되고 성경적인 인간관을 갖고 내담자들을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첫날(16일) 성경적변화의 역동적 과정, 인간의 변화 8단계, 둘째 날(17일) 성경적 상담방법, 셋째 날(18일) 성경적 상담원리로 어떻게 가정을 설교할 수 있는지, 부모와 자녀교육, 넷째 날(19일) 성경적 상담역사와 성경적 상담설교에 대해 강의했다.

미주성경적상담 컨퍼런스 코디네이터 노정해 목사는 "상담할 때 내담자들의 상태를 잘 살피지 못한 실수들이 있었다. 목회자들에게는 적용과 평신도들에게 적용하는 것들의 차이가 있다. 성경적 상담학을 전하면서 상담을 통해 치유까지 됨을 배우게 됐다. 목회상담을 접하면 삶과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KWJM 한류선교 찬양콘서트가 올림픽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이때를 위함이라' 주제로 KWJM 한류선교 찬양콘서트

KWJM 한류선교 찬양콘서트가 17일 저녁 8시15분 올림픽장로교회(담임 정장수 목사)에서 열렸다.

KWJM(한류문화선교회 대표 조효성 목사)의 G&S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현진주 자매와 정겨운 자

매, 그리고 악기연주자 송찬양 형제가 조효성 목사와 함께 출연해 간증과 찬양 등 찬양집회 형식으로 콘서트를 진행했다. 또한 남가주에서 활동 중인 로그댄스미니스트리의 댄스팀이 찬조출연해 콘서트를 빛내

주었다.

조효성 목사는 "오랜만에 미국을 방문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그동안 소망했던 한류선교의 큰 열매를 맺고 한류선교에 대한 비전을 미국의 성도들에게 나누고자 왔다. 전 세계가 영적으로 위기다. 이럴 때일수록 선교와 복음전하는 일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장수 목사는 "감동과 은혜가 넘쳤던 공연이었다. 한류라는 문화를 가지고 나아가는 선교단체라 프로페셔널하게 준비가 잘 돼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역은 이 시대 필요한 사역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류선교 찬양콘서트는 15일 사랑나무교회, 19일 주사랑연합감리교회, 20일 라스베가스웰로시교회, 25일(토) 하나로커뮤니티교회, 26일(주) 토기장이교회에서 각각 열렸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리폼드신학교 2015년 가을학기 학생 모집

뉴욕리폼드신학교(학장 유상열 박사)가 2015년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학사: 신학, 교육학, 상담학, 음악학, 선교학 △석사: 목회학, 교육학, 상담학, 음악학, 선교학이며, 교회실용음악과(32학점)가 있다. 동 신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신측) 미주동부노회가 운영하는 사역자 양성기관으로 개혁주의 보수신학을 전수한다. 개강예배는 9월 6일(주). 웹사이트 www.rbsny.org, nyrbs.org
▲문의: (917)862-0523

사역자 청빙

뉴욕 부르크클레이교회(담임 이윤석 목사)에서 유초등부와 중고등부를 담당할 교역자를 각각 청빙한다. 이메일 younsuklee@hotmail.com
▲문의: (917)353-5477

청소년 리더십 캠프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유스 리더십 캠프'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뉴저지 사무실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2백 달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출판한 프랭클린 코비사가 개발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패밀리터치는 프랭클린 코비사의 공식 훈련센터 자격을 획득했다. 청소년기에 꼭 가져야 할 삶의 원칙과 태도, 습관 등을 수립하도록 돕는다.
▲문의: (201)242-4422, (917)698-6065

사역자 청빙

뉴욕 주사랑장로교회(www.joosarangny.org)에서 유년(유치)부 사역자를 청빙한다. 이메일로 간단한 이력서 및 연락처를 보내면 된다.
▲lcpjoo@gmail.com

사역자 청빙

해외한인장로회 소속 필라델피아교회(담임 호성기 목사) 한어부 장년사역 전인 부교역자를 청빙한다. 사역내용은 선교위원회와 장년교구 담당으로 자격은 정규신학교 M.Div. 과정수료자로 1974년 이전 출생자 및 이민교회 5년 이상 전임사역 경험자와 이중언어자 및 영주권자를 우대한다. 제출서류는 1차 이력서, 자기소개서(신앙고백서, 지원동기, 사역계획)이며,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추천서 2장(교회, 신학교 등)을 보내야 한다. 1차 서류마감은 8월 16일. 문의 및 서류 보낼 곳: pastorcho@pgmususa.org 조상명 목사.
▲문의: (610)28-6760

교회, 예배, 교리...평신도 훈련

뉴욕연회 한인연합감리교회 신령직 훈련

뉴욕연회 한인연합감리교회(KUMC) 신령직 훈련이 지난 19일 오후 4시부터 후러싱제일교회(담임 김경호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교회와 예배/김영식 목사 △연합감리교회 교리와 장정/김성찬 목사 △정치기적/장재용 목사 △교리/이용보 목사 등 4가지 주제로 개최됐다.

첫 시간 '예배와 교회'에 대해 강의한 김영식 목사는 시편 100:1-5 절을 본문으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 설명하고 1)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이며 2)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며 예배(구역-새하이, 아바드, 신약-프레스퀴네오)의 뜻과 예배자의 필수조건, 예배자의 필수내용 등

예배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또 교회에 대해서도 에클레시아(회중의 모임),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거룩성, 모이는 교회와 흠여지는 교회, 구원의 방주 등에 대해 설명하고 말씀선포와 교회의 특징인 성례의 집행, 권징의 시행을 설명하고 교회 직분에 대해 강의했다.

둘째 강의 "교리와 장정"에 대해서 김성찬 감리사는 교회임원회와 행정위원회로 나누며, 공천위원회, 목회위원회, 재단이사회, 재정위원회 등에 대해 설명했다.

4개 주제의 교육이 끝난 후 교육성과를 확인하는 개인별 인터뷰가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여수론기독교학교 2015년 9월 개교

시라큐스한인교회, 선교사자녀 학교 시작

뉴욕 주에 있는 시라큐스한인교회(담임 지용주 목사)가 5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선교사자녀학교인 "여수론 기독교학교"를 시작한다.

동 학교의 교장 직을 맡은 지용주목사는 "여수론(Jeshurun)"이란 "올바른 자, 정직한 자"라는 의미로써 하나님께서 의롭게 한 자, 즉 성도를 가리킨다(사44:1-5). 이 학교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어디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며 정체성의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 자녀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회복되게 하실 것임을 약속해주셨다. 그리고 이 일을 섬기며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값급한 심령에게 물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며,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전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군사 양성" (마6:33)을 교훈으로 세상의 영광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이 여수론 기독교학교의 목적이다.

3P(성경적 관점 Biblical Perspective, 하나님 나라의 목적 Kingdom Purpose, 하나님 중심의



여수론기독교학교 전경

사람 God-centered People)와 3S(순전한 복음 Sound Doctrine, 순전한 삶 Sound Life, 순전한 지식 Sound Preaching)을 모토로 교육한다.

여수론 기독교학교는 우선 홈스쿨링(미국 홈스쿨 교과과정 채택) 형

홈페이지: http://www.Jeshurunchristianschool.org/ Email: info@jeshurunchristianschool.org 전화: (315)474-8346 (정리: 유원정 기자)



조지아해병목사회 2차 모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천국복음 사역 위해 정진하자"

조지아해병목사회 2차 모임, 새 회원 3명 가입

애틀랜타 및 조지아에서 사역하는 해병대 출신 목회자들의 모임인 '조지아해병목사회'(Georgia Marine Corps Clergy's Assn.)는 지난 14일 오후 7시30분에 스와니에 위치한 유지화 목사 자택에서 3명의 새 회원의 가입을 환영하며 제 2차 모임을 가졌다.

모임에 앞서 김종권 목사(부회장)의 사회로 드린 예배는 어태용 목사(총무)가 기도하고 유지화 목사(회장)의 설교, 배창성 목사(고문의 축도로 이어졌다.

유지화 목사는 출애굽기 17장 8-16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종들은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은 영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일평생 마귀들과 싸워가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얼룩말들을 보면 항상 뒤쳐지는 말이 잡아먹히듯이 마귀들도 영적으로 무장된 성도들에게는 감히 덤비지 못하므로 우리 해병목사들도 귀신 잡는 해병의 정신을 살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성도들을 가르치고 천국복음의 사역을 위

해 정진하자"고 강조했다.

예배 후에는 흥분공 목사의 식사기도로 푸짐하게 마련된 만찬을 나누며 화기애애하게 진행된 이날 모임에는 흥분공 목사(116기, 애틀랜타사랑침례교회), 류영호 목사(166기, 애틀랜타노인대학 학장), 고영민 목사(762기, 새생명침례교회 협동목사) 등 3명의 새 회원이 가입해 환영을 받았으며, 앞으로는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여 예배와 기도모임을 갖고 영적으로 유익한 목회정보 및 세미나 등을 통해 회원 간의 친목을 다져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5월 21일에 애틀랜타에서 미주최초로 창립된 '조지아해병목사회'는 애틀랜타를 비롯한 조지아주 각지에서 사역하는 해병대출신 목사들을 회원으로 회원 간의 친목과 사역에 대한 활동을 펼쳐 가고 있다.

차기모임은 8월 13일에 있으며, 가입을 원하는 해병출신 목사들은 어태용 총무(404)547-4754로 연락하면 된다.

(기사제공: 조지아해병목사회)



퀸즈장로교회 찬양집회에서 찬양팀과 함께 강명식 찬양사가 찬양하고 있다.

퀸즈장로교회, 강명식 찬양사 초청 찬양집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지난 15일 수요예배에서 강명식 찬양사 초청 찬양집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퀸즈장로교회 찬양팀과 워싱턴스팀이 함께 한 집회를 통해 장년과 청년들이 한마음으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했다.

찬양집회 후반부에는 강명식 찬양사의 찬양사역 선배이며 60여년 동안 퀸즈장로교회에서 찬양사역을 인도했던 이광국 찬양사역자가 찬양을 인도하기도 했다. 또 해외선교종인 김성국 목사를 대신해 오인수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강명식 찬양사는 이날 찬양을 인도하기 전 찬양곡들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 찬양사는 "진리"라는 곡은

고 옥한흠 목사의 설교 한편을 담은 것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의 시간 속에 주님을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어야 할 네 가지 진리"라며 "신앙인이려면 다 아는 내용이지만 늘 잊어버리고 살기에 늘 고백하며 붙들고 살기 위해 만든 곡"이라고 말하고 1)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2)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3)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4)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명식 찬양사는 1989년부터 주찬양 선교단과 어노인팅에서 찬양사역을 했으며, 현재 숭실대학교에서 현대교회음악과 교수로 후진들을 양성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뉴욕연회 한인연합감리교회 신령직 훈련에서 김영식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16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6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5년 9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5년 9월 30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유 료 광 고 안 내	둘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500.00
			Inside	\$2,2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 1/4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15.5 × 2.8cm		\$250.00		
둘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축하광고(사진삽입)	3.7cm × 7.5cm	\$200.00	

무 료 리 스 팅 신 청 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 위키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십시오.

북한억류 임현수 목사 조속안전송환위한 기도회

캐나다 정부 및 UN에 보내는 호소문 채택

지난 1월 27일 캐나다를 출발해 북한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 없이 북한에 억류중인 것으로만 확인된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담임 임현수 목사의 조속하고 안전한 송환을 위한 LA지역 기독교 단체 및 언론단체 연합기도회가 7월 12일 오후 5시 LA KCCC 센터에서 열렸다.



KCCC에서 열린 북한억류중인 임현수 목사의 조속하고 안전한 송환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

임현수 목사는 70년 대 초반부 고등학교 시절부터 한국 CCC에서 훈련 받고 그 이후 CCC 간사로 재직하다가 캐나다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토론토에 이주한 목사가 담임하던 큰빛교회 2대 담임목사로 취임해 사역을 감당해왔고 지난 20여년간 북한에 110여회 이상을 방문하며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북한에 동포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다.

또한 기도인도자로 나섰던 JAMA 대표 강순영 목사, 가주은혜교회 김영렬 목사, LACCCL사택형제들 강성봉 회장 등은 △임현수 목사의 북한에서의 건강과 스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족들에게 끝까지 평강을 갖고 기다릴 수 있도록 △캐나다 정부 및 UN 등에서 속히 임 목사의 송환을 위해 애써줄 것 등을 위해 기

도를 했다. 한편 임목사의 후배이고 함께 오랫동안 CCC와 성서화운동 등에서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LA목회자아버지학교 8월 10일부터

제 11기 LA목회자아버지학교가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주제로 동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사)에서 개최된다.

목회자 아버지학교의 일정은 오는 8월 10일(월) 오후 4시30분부터 9시30분, 11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16일(주)과 30일(주) 오후 4시30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다. 강사는 모범적 아버지상을 갖고 있는 정대성 목사(콜로라도 덴버 뉴라이프교회 담임), 이준성 목사(ANC온누리교회 선교담당 목사), 권준 목사(시애틀 형제교회 담임), 미주아버지학교 총지도 목사, 박형은 목사(LA동양선교교회 담임)이다.

목회자아버지학교 관계자는 "목회자아버지학교는 모든 아버지 신분인 목회자들(목사, 전도사, 강도사, 선교사)을 대상으로 열리게 된다"고 언급하고 "일만 평신도와 달리 목회직장에서 열심히 섬기는 목회자들이 자신이 목회자이기 전에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목회자는 목회자라는 특수한 위치로 인해 남편과 아버지의 자리를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며 본인의 부족한 점을 안다고 할 지라도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함을 느꼈던 목회자 아버

동역했던 이성우 목사는 임현수 목사가 속히 석방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도 나누었지만 이일 이후에 앞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이나 그동안 임현수 목사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다양한 북한을 돕던 일들이 중단되지 않기를 하는 우려의 마음도 내비쳤다.

이날 전체적인 사회는 임 목사의 40년 지기 친구인 큰빛감리교회 조현영 목사가 담당했고 대표기도는 미주성서화운동 이사장인 김경수 장로, 축도는 미기총 증거회장 최학량 목사가 담당했다.

특히 이번 기도회에서는 캐나다 정부 및 UN주재 북한대사에게 전달하는 호소문도 공개했으며 임현수 목사를 위한 기도운동의 확산을 위한 공동기도문도 배부됐다. (기사제공: KCCC)

지들이 이번 목회자아버지학교를 통해 답을 찾게 될 것"이라 밝혔다. 목회자아버지학교 9기생이자 11기 아버지학교 스템으로 섬기는 김인구 목사는 "아버지학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강력한 성령운동이다. 4회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한 가정에 대한 아내들의 소망과 밝은 미래를 향한 자녀들의 바람이 걸려있는 학교, 그래서 성경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운동이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학교이다. 둘째째 삶의 실천운동이다. 단순히 이론과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아닌 여러 가지 숙제와 나눔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삶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학교이다. 셋째 연합운동이다. 아버지학교를 통해서 은혜 받은 각 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와 교회가 준비하고 섬기는 연합운동이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고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으며, 지역을 초월해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그 누구든지 어울릴 수 있는 학교"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11기 아버지학교의 참가비는 1백달러이며 자세한 문의는 (213)382-5454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울타리선교회 창립16주년 감사예배가 열렸다. 사진은 배재코랄의 흥겨운 찬양에 이날 참석한 모두가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울타리선교회 창립 16주년 감사예배

울타리선교회(대표 나주옥 목사)는 창립 16주년 감사예배를 18일 오전 10시30분 Ray of Light Missionary 집례교회에서 개최했다.

나주옥 목사는 "울타리선교회가 16번째 생일을 맞게 됐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함께 모여 잔치하게 됐다. 이 모습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같아서 감사하다. 앞으로 더욱 씩씩하고 힘차게 사역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설교를 맡은 김준식 목사는 "16년을 맞이한 울타리선교회를 축하하며 이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다. 울타리선교회 로버트 하소 목사의 환영인사와 나주옥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이상훈 목사(성광장교회)가 감사기도를 했으며, 남가주동역교회(지휘 양혜원), 배재코랄(지휘 우의철), 남가주 서울사대부중고동문화 합창단(지휘 박범준)이 특송했으며, 김준식 목사(남가주살롬교회)가 We Do it for Jesus(고후4: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날 감사예배는 김국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크리스천 거리문화사역 더넛트 파킹랏콘서트가 한국에서 활동중인 크리스천인디밴드 사운드라이츠 콘서트로 열렸다

서부교계 게시판

동양선교교회 설립 45주년 행사
동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사)는 설립 45주년 행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설립 45주년 감사부흥성회: 7월 24(금)-26일(주) 강사: 호성기 목사(필라란디독교회) △설립 45주년 기념식 및 축하 콘서트: 26일 오후 4시 동양선교교회 분당 △Dr. Dongsun Lim 비전센터 개관식 및 전시회: 26일 오후 5시30분 리본커팅 후 저녁식사
▲문의: (323)466-1234, (213)670-5847

은혜한인교회 장애인 여름성경학교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장애인 사역국이 주최하는 장애인 여름성경학교가 27일(월)부터 2주 동안 실시한다. 대상은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비는 필드 트립 비용 포함 350달러다. 선착순 30명.
▲문의: (714)497-6059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세미나
한인커뮤니티와 한인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LA카운티 정신건강국(LACDMH)이 주최하는 종교계와 커뮤니티 지도자들이 함께 하는 세미나가 '마음의 감기 우울증 그 원인, 증상과 진단'이라는 주제로 30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213)738-3446 안정영 LCSW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충현선교교회 교회설립 30주년 기념 부흥성회 및 임직예배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중기 목사 5005 Edenhurst Ave, LA, CA)는 교회설립 30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도시의 기쁨이 되는 교회(행 8:8)'라는 주제로 8월6일(목)부터 9일(주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순복음 교수(고신대 석좌교수)이며 일정은 목요일 저녁 7시30분, 토요일 저녁 7시 주일 1,2,3부예배, 한편 8월9일(주일) 오후 3시 안수집사 취임 및 장립, 권사취임 및 임직식을 갖는다.
▲문의: (818)549-9191

크리스천인디밴드 사운드라이츠 출연

전전공연문화 조성 더넛트 파킹랏 콘서트 성황

더넛트(대표 다니엘박 목사)가 주최하는 파킹랏 콘서트가 18일 오후 7시30분 가주영여학교 주차장에 마련된 특별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콘서트는 한국의 신혼과 여의도, 그리고 흥대에서 활동 중인 크리스천 인디밴드 '사운드라이츠'의 공연으로 펼쳐졌다. 비가 오는 가운데 열린 콘서트는 2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이 모였으며 사운드라이츠가 연주하는 곡 한 소절 한 소절을 놓치지 않는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곡중 랩 부분에서는 모두가 손을 흔들며 흥겨워하는 모습이 보여 공연자와 관객이 하나가 되는 느낌을 주었다.

이날 관객으로 참여한 이정훈 씨는 "한인타운 안에 젊은이들을 위한 공연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즐거운 감동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사운드라이츠 멤버인 강근영 자매는 "즐거운 마음으로 공연을 하게 되고 관객과 하나가 된 느낌을 받아 기뻐다. 기회가 되면 다시 이곳에서 공연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넛트 관계자는 "아침부터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셨다. 특히 청년들이 와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는 파킹랏 콘서트가 목회했던 젊은이들을 위한 건전한 공연문화가 서서히 자리잡아가는 모습이며, 장년층에서도 참석해 함께 한 것은 공연문화가 세대와 세대를 한데 엮어주는 매개체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좋은 공연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한인타운 안에 건전한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넛트 파킹랏콘서트의 다음공연은 오는 8월 22일(토) 오후 7시 '더블레스 III'라는 주제로 열리게 된다. ▲문의: (213)999-4909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8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금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lafg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youngnak.com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p>	<p>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nachimban.org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p>	<p>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11:30 EM, 대부부: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www.nachimban.org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p>		
<p>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탄):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0(월-토) Tel: (213)380-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p>	<p>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목요 예배: 오후 7:00 새 예배: 오전 6:00(월-토) www.scrdm.org Tel: (213)215-8523, Fax: (213)977-1183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남가주사망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20 침 문 이 예배: 오전 1:20 영양예배 (영소:KDC, 캠퍼드(월-토))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hpc.org</p>	<p>등문교회 담임목사: 김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www.gkpc.org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p>		
<p>미주중앙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침소:새벽: 오후 2:00(다문화합)) 새벽기도: 오전 5:40(월-토) www.mjpc.org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p>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토) 새벽기도: 오전 6:00(토) Tel: (310)749-0577 3521 Lomita Ave., Torrance, CA 90505</p>	<p>베델인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청년) 성일예배: 오전 11:00 대형예배: 오후 1:00 영양예배: 오후 1:00(수요예배: 오후 7:30) Tel: (949)854-4010 / E-mail: belthe@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p>복음성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수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p>		
<p>얼마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5:30(월-토) 수요성경기도: 오후 7:0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inut Ave., Irvine, CA 92604</p>	<p>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합))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11:00 www.wilshirechurch.com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p>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온라인예배: 365일 24시간 온 www.gracemc.com Tel: (714)448-6200, Fax: (714)448-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www.gjcc.org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9-9259 Fax: (714)649-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새벽(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예 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저녁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p>
<p>얼마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5:30(월-토) 수요성경기도: 오후 7:0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inut Ave., Irvine, CA 92604</p>	<p>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합))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11:00 www.wilshirechurch.com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p>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온라인예배: 365일 24시간 온 www.gracemc.com Tel: (714)448-6200, Fax: (714)448-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www.gjcc.org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9-9259 Fax: (714)649-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새벽(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예 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저녁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p>
<p>얼마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5:30(월-토) 수요성경기도: 오후 7:0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inut Ave., Irvine, CA 92604</p>	<p>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합))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11:00 www.wilshirechurch.com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p>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온라인예배: 365일 24시간 온 www.gracemc.com Tel: (714)448-6200, Fax: (714)448-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www.gjcc.org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9-9259 Fax: (714)649-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새벽(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예 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저녁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p>

‘받는 구세군에서 주는 구세군으로’ 한국구세군, 자립 군국으로 승격

한국구세군(사령관 박종덕)이 국제구세군의 도움을 받던 ‘준자립 군국’에서 도움을 주는 ‘자립 군국’으로 발돋움했다. 세계에서 21번째, 아시아에선 일본과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다.

한국구세군은 최근 한국 군국이 선진 구세군 대열인 C그룹으로 승격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제구세군은 126개국 구세군을 자립 정도에 따라 A그룹(미자립 군국) B그룹(준자립 군국) C그룹(자립 군국)으로 분류한다. C그룹에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등 선진국들이 포함돼 있다.

국제구세군은 군국 사역의 다양성과 적극성, 사회 참여 정도, 성직

자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룹의 승급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구세군은 그간 준자립 군국인 B그룹에 속해 있었으나 지난 5월 자립 군국인 C그룹에 합류했다.

국제구세군은 자립 군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의무 사항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구세군의 역사성과 전통성 유지’이며 둘째는 ‘군국의 확고한 재정 자립’이다. 나머지 사항은 ‘세계 속 구세군 확장 지원’ ‘국제구세군의 일원으로 더 개방적인 교류’ ‘국제구세군의 과제에 적극 참여’ 등 국제 활동에 활발히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구세군은 앞으로 국제구세군과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교회와

예큐메니컬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내부 조직 정비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국내 구호단체들은 경제성장과 기부문화 확산에 힘입어 1990년대부터 ‘받는 단체’에서 ‘주는 단체’로 변신하기 시작했다. 한국구세군은 이들 단체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이들 단체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C그룹 승격으로 국제적 위상이 향상됐다는 점에 고무된 분위기다.

구세군 관계자는 “한국구세군의 197년 선교 역사가 국제구세군으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라며 “선진국 구세군 대열에 합류한 만큼 더 효과적으로 국제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통합 100회기 부총회장 후보 이성희, 문원순 목사 등록 완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은 100회기 부총회장 후보로 이성희 서울 연동교회 목사와 문원순 서울 승리교회 목사가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정기총회 개최 60일 전에 부총회장 후보 등록을 마치고 등록 되어 있는 예정통합 총회 임원선거조례와 시행세칙에 따라 두 사람은 14일 후보신청서와 증명서류, 공탁금을 총회에 제출하고 등록을 마쳤다. 후보기호는 이 목사가 1번, 문 목사가 2번을 배정받았다.

이 목사는 “공정한 선거운동과 정책대결을 통해 모범적인 선거를 치러 교회 위상을 높일 것”이라며 “하

나님 앞에, 총회와 교회 앞에 무릎 꿇고 섬기겠다”고 말했다. 문 목사도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과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해서만 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두 후보는 오는 21일 경복지역(대구 대봉교회)을 시작으로 28일 경남지역(부산 백양로교회), 30일 전남지역(광주 하남교회), 31일 전북지역(전주 예은교회), 다음달 4일 중부지역(충주 효성교회), 6일 서울·수도권지역(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에서 소견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예정통합 제100회 정기총

회가 오는 9월 14-17일 충북 청주 상당교회(정삼수 목사)에서 열리는 가운데 총회기간 중에는 주제인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에 맞춰 예배를 진행한다. 아침예배는 각각 ‘하나님께로 나아감’(15일) ‘이웃에게로 나아감’(16일) ‘세상을 향해 나아감’(17일)으로 세부 주제를 정해 드린다. 16일 저녁 열리는 ‘제100회 총회 기념예배’에서는 총대들이 사회와 교회 안에서 화해자의 삶을 살아가고 다짐하는 비전선언문을 발표한다.

총회주제연구위원장 노영상 호남신대 총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할 수 있다”며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고 특별히 100회 총회를 맞이하는 만큼 나누고자 찢겨진 역사가 이번 총회를 통해 하나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일성수 안하는 청소년들, 부모 책임 더 커” 예정합동 총회교육부 주일성수 캠페인 위한 간담회

“다른 것은 다 실패해도 주일성수는 꼭 성공해야 합니다.”

김창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백남선) 총무는 16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총회 본부에서 열린 ‘주일성수 캠페인을 위한 간담회’에서 “주일성수는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총회교육부(부장 김연도)와 기독교신문사(사장 이재천) 공동주최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노재석(전주서부중앙교회) 장영일(대구범어교회) 이문희(맑은샘광천교회) 목사, 박용규 총신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주일성수에 대한 현실과 한국교회의 대응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장 목사는 “미디어의 발달과 교회의 주중 프로그램 증가가 주일성수의 당위성을 감소시켰다”며 “교회가 제공하는 콘텐츠들로 인해 성도들이 주일예배에 참석했다고 착

각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노 목사는 “청소년들의 주일예배 참여율 감소가 학원 때문이라고 하는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주일에 학원을 보내는 부모에게 있다”며 “물질주의에 매몰된 크리스천들에게 안식일과 안식의 본질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지난 6월 전 교인을 대상으로 전개했던 주일성수 캠페인을 소개했다. 그는 “주일성수와 관련된 설교부터 메시지가 적힌 팔찌 배부, 성도 이름이 적힌 출석 봉헌함 마련, 사진 콘테스트 등 4주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진 캠페인이 안식일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을 재무장시켰다”고 평가했다.

주일성수 캠페인이 구약의 율법적인 것에 얽매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목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안식의 선포이며,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제사를 지내게 함으로써 안식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시 돌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안식과 함께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희망이라는 점을 알리는 것이 주일성수로 이어지는 방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박 교수는 “성공적으로 회복해가는 교회 사역을 취합하고 지속적으로 알려져 교단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함께 짐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재경 총회교육진흥국장은 “주일성수를 단순히 교육 주제로서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운동으로 각 교회에 확산시키고자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교단 자체적으로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즈 감염자 다수는 남 동성애자’ 동성애자 인권단체도 보고서에서 인정

‘에이즈 감염자 중 다수가 남성 동성애자’라는 내용이 수록된 동성애 단체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에이즈와 동성애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부정하려 애쓰는 동성애 단체가 이런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민일보가 16일 입수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구 동성애자 인권연대)의 ‘40-60대 남성 동성애자 에이즈 감염인 생애사 보고서’는 “한국의 에이즈 감염인 중 다수는 남성 동성애자”라면서 “초기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동성애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에이즈가 동성애와 관계없다’는 식으로 분리시켜 왔는데 이런 역사는 지금도 (동성애자) 커뮤니티 안에서 에이즈를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기 부담스러운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동성애와 에이즈 간) 분리의 역사는 두 키워드를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노력을 방해한다”면서 “일련의 거리두기는 오히려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의도적으로, 혹은 부지불식간에 배제하고 은폐하여 감염인의 성적 지향과 질병 사이의 관계 가능성 자체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에이즈 감염이 동성애자 내부에서 또 다른 차별을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남성 동성애자 에이즈 감염인들은 게이 커뮤니티에서 자신들의 감염사실을 숨긴 채 살아간다”며 “이들이 커뮤니티 안에서 자신의 감염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금기시된다. 감염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감염인 동성애자는 공공연히 소문의 대상이 되어 차별과 배제를 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남성 동성애자의 감염률이 높은 국가”라며 “이는 분명 에이즈가 국내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이슈임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또 “성소수자 운동의 외연이 확대되고 커뮤니티가 제 목소리를 만들어가는 지금, 에이즈 이슈에서도 질병 당사자를 커뮤니티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이슈를 주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설립한 아름다운재단에서 재정을 지원받아 2013년 작성된 것으로, 에이즈에 감염된 남성 동성애자 6명을 심층 분석한 내용이다. 연구에 참여한 6명의 에이즈 감염 개인들은 종로의 극장, 술집, 찜질방, 사우나 등을 떠돌며 성관계를 가졌다고

밝혔다. 일부 응답자는 에이즈 감염 후에도 관계를 가지며 그때마다 죄책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관계자는 “에이즈 감염인 중 다수가 남성 동성애자라는 것은 정부 통계에 나온다”면서 “잘못된 것은 에이즈에 대한 차별과 낙인이며, 죽을병처럼 몰아가는 혐오가 더 나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에서 동성애에 대한 기사를 비판적으로 쓰면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와 에이즈 간 관련성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면서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의 위험성을 알리면 감염인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의료계에서 ‘남성 간 성접촉이 에이즈 확산의 주요인’이며, 에이즈가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주로 유행하는 질병이라는 점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보건복지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질병관리본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과 관련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민성길 전 연세대 교수는 “미국 일부 영국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에이즈 전파의 주요인인 남성 간 성접촉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면서 “에이즈 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라도 남성 간 성접촉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의 위험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음란행사 열릴 줄 알면서도 광장·시청 사용 허가” 서울시민 등 6510명 박원순 시장 고발

서울시민 등 6510명이 서울광장과 서울시청을 동성애 단체에 빌려준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권남용 및 공연음란 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의 장소로 빌려줘 경범죄처벌법에 저촉될 정도의 음란행위와 음란물 게시·제조·판매 행위를 방치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김진(58)씨는 “동성애자들이 지난달 28일과 지난 4일 대한민국 심장부인 서울광장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자행했다”면서 “박 시장은 직권의 범위를 넘어 시민들의 재산인 서울광장 및 서울시청 태평홀을 사용케 해줬고 공연음란행위를 묵시적으로 조장해 위법행위를 방조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시민 6509명의 위임을 받아 1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고발장에서 “서울광장은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

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 취사행위, 주류반일행위 등을 못하게 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지난달 28일 동성애자들은 실오라기 같은 팬티 하나만 착용한 채 전신을 노출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드카 등 양주와 맥주, 소주를 다량 소지해 음주하고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등 범행도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성애자들의 이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충분히 걸리는 데다 퇴폐적 행위를 권리행사라고 볼 수도 없다”면서 “박 시장은 이러한 자들의 단체행동에 동조해 서울광장과 서울시청이 본래 조성목적 취지에 반하는 퇴폐문화장소로 제공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또 “박 시장은 귀어문화축제 진행자 등의 전례에 비추어 서울광장과 태평홀에서 공연음란행위를 저지를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더군다나 당일

서울시 관계자들은 이런 사실을 육안으로 직접 목격했음에도 적극적으로 중지명령을 하지 않아 결국 수도 한복판에서 공연음란행위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동성애자들이 제조·전시·판매했다는 음란물의 증거사진을 첨부해 제출했다. 그는 고발장에서 “현장에는 특정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음란물과 음란행위가 있었다”면서 “신임 법무부장관도 인사청문회 때 ‘사회질서 유지와 공공복리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때는 반드시 제한을 두고 그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공공연히 공연음란행위를 하고 음란물을 게시·판매·제조한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서울시 총무과 소속 공무원과 남남(男男)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으로 동성애 단체인 신나는 센터를 설립하고 태평홀을 빌린 김광수씨를 추가 고발했으며 박 시장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며 “건전한 사고를 지닌 서울시민의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02-523-7731).

“에이즈 감염원인 정확히 밝히라” 한국교회연론회 논평, 동성애 깊은 관련 당국 공개 안해

한국교회연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19일 ‘에이즈 감염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연론회는 ‘에이즈 감염자 중 다수가 남성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동성애자 인권단체 보고서에서 인정했다’는 국민일보 보도(7월 17일 자 25면 참조)에 대해 “적절한 보도”라고 평가한 뒤 “동성애자들이 자기 방어를 위해 ‘동성애와 에이즈가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국가기관이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회연론회는 “많은 보건 전문가들이 동성애와 에이즈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속속 내놓기 시작했다”면서 “동성애 단체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2012년부터 질병관리본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에이즈 감염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항의하는 시민단체에 변명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문제는 정치·이념적, 이익집단의 논리에 의해 좌

우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확한 자료는 동성애자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나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비용의 산출을 위한 것이다. 자라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 보도를 막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비판도 덧붙였다. 교회연론회는 “국가인권위가 동성애의 적나라한 실태, 동성애와 특정 질병과의 관계 보도를 차단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면서 “국민 세균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막는다면 그 존립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주U대회 선수촌교회 폐촌예배 지역교계 협력 20일간 복음사역 펼쳐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기간 동안 광주 화정동 U대회 선수촌에 복음을 전파한 선수촌교회가 최근 폐촌예배를 드리고 활동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지역 교계가 협력해 20일 가까이 문을 연 하계U대회 선수촌 교회는 각국 선수와 임원들에게 예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상담 등을 통한 복음사역을 활발히 펼쳤다.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에서는 이를 위해 전문사역자 등 3명의 상임목회자가 상주하며 봉사했다. 폐촌예배는 기독교민방사단 본부장 김성원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광

주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남종성 목사는 광주지역 목회자들과 성도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한 예배에서 ‘승리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남 목사는 “1500개 교회 40만 성도의 광주 기독교인들이 U대회 성공을 기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은 우리 모두의 승리”라며 “하나님께서 귀한 수고를 기억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폐촌예배는 사역에 대한 활동보고에 이어 감사기도와 감사인사, 격려의 말씀 순서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U대회 조직위원회 정용화 부위원장은 “메르스와 북한 불참 등 많은

악재가 있었지만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중심에 기독교가 있었다”며 “광주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축사했다.

U대회 개막이전인 지난 6월28일부터 문을 연 선수촌 교회는 그동안 주일과 수요예배를 드렸다. 또 매일 아침예배와 성경공부, 외국인 선수들을 위한 영어 성경예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는 이번 U대회 선수촌교회를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향후 2019세계수영선수권 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지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광주에서 개최된 2015 광주U대회는 140여개국 1만2000여명의 대학생들이 기량을 겨뤘다. 한국은 U대회 참가 이후 첫 종합우승의 위업을 달성했다.

담임목사청빙

워싱턴주 씨애틀에 위치한 시온장로교회(PCUSA)는 자체교회당을 소유한 복음주의적인 교회로 30년을 시무한 담임목사의 은퇴로 후임목사를 다음과같이 청빙합니다.

* 자격 *

1. 신학교 (M.Div.) 졸업하신분.
2. PCUSA 교단소속이거나가입이가능하신분.
3. 담임목사 5년이상하신분 (부목사경력포함).
4. 한국어,영어설교가능하신분.
5. 미국체류에걸려사유가없으신분.

* 제출서류 *

1. 이력서(한국어,영어각 1부사진포함)
2. Personal Information Form(www.pcusa.org에서다운가능)
3. 목사안수증명서(Certificate of Ordination)
4. 신학교(M.Div)졸업증명서
5. 신앙고백서(Statement of faith)
6. 신앙여정서(Journey of faith)및자기소개서(가족,내가만난하나님,목회자가된동기)
7. 목회소견서(목회계획,목회철학,목회 Vision)
8. 추천서 2부

* 보내실곳 *

Korean Zion Presbyterian Church(청빙위원회)
17920 Meridian Ave, N. Shoreline, WA 98133
Email: zionpnc@gmail.com
* 서류마감일 : 2015년9월 26일
* 문의: 시온장로교회청빙위원회장송광우장로
* 제출서류는반환하지않습니다.

시온장로교회

선교의 창 (36)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차이

송종록 목사 | (대학선교, 수필가)



세상에는 기독교 이외에도 전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있다. 바로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세 종교는 모두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중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구약성경을 사용하고 있으며 유일신(monotheism)을 믿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믿음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세 종교는 지난 세기 동안 끊임 없이 대립하며 갈등 가운데 있어왔다. 때때로 이러한 반목은 전쟁으로 비화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했다. 오늘날 중동은

“메시아” *m. sh.* 라는 원래의 의미는 “기쁨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 “메시아”라는 히브리어가 칠십언어 LXX 그리스어로 번역이 될 때에 “크리스토스”(그리스도) *Χριστός* 라고 번역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쁨부음을 받은 구원자”라고 이해되는 것이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을 모두 믿는다. 그러나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prophet) 중의 한사람으로만 여

죄에 대한 이해
기독교 “죄”의 원어적 의미는 “표적을 빗나가다, 실패하다”라는 뜻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말하며 그 기준에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어기는 것을 말한다. 원죄와 자범죄로 나눈다. 유대교는 율법 613개를 불이행하는 것이다. 이슬람은 알라 신의 뜻에 역행하며 다섯 가지 표주에 기록된 대로 종교적 임무를 등한시 하는 것이다.
구원관
기독교는 이신칭의(以信稱義) 사상이다. 즉,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오로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신 예

수님은 은혜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비해 유대교는 율법준수를 강조한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얼마나 거룩한 태도로 행동해왔느냐에 따라서 내세(來世)가 결정된다고 믿는다. 무슬림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선하고 바른 행동을 하면, 다음 세상에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이 율법적으로 철저히 종교적 의식과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처럼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내세관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히 가르친다. 유대교는 이에 대해 분명치 않다. 이슬람은 낙원과 지옥을 말하지만 기독교의 내세관과 다르다.
사제의 존재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사제가 없다. 유대교에 ‘랍비’가 있고 이슬람교에 ‘이맘’이 있으나 이들은 사제가 아니다. 평신도인데 다만 공부를 많이 해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동일한 역할을 할 뿐이다. 반면 기

(5면에서 계속)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공립학교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지상명령: 예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대명령(마28:19-20)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유혹에 대해서 늘 경성하고 있어야 하지만 예수께서는 믿는 자들이 세상과 격리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안에 머물러 그분의 영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요17:11,15-16). 이 말씀을 아이들의 교육원리에 적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와 격리되어 공립학교에 보내기보다는, 마귀와 그들이 일으키는 세속화에 대해 아이들이 혼자서 판단하고 전투에서 이길 만큼 준비된 후에 세상에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변화: 중요한 것은 부모나 양육자들이 우리들의 아이들로 하여금 마귀의 간계에 무지하게 방치되지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성장하는 아이들이 비 기독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리로 굳게 서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관계로 나아가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교육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변화를 위한 현장으로 공립학교 교육의 장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대안: 그러나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세속적인 인본주의에 노출되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적어도 중학교 정도까지는 공립학교 교육보다 기독교 학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는 기독교인 부모들이 그룹을 이루는 홈스쿨링을 통하여 부모가 교사가 되어 영적, 정신적, 신체적인 면까지 신앙적으로 잘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들은 장학금 제도와 함께 좋은 시스템을 가진 기독교 사립학교를 지향할 수 있습니다. 또 공적인 자금을 받아서 교사, 부모, 지역단체 등이 설립한 학교인 차터스쿨(Charter School) 등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낼 시기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자녀들이 세속성을 잘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죄와 의, 진리와 거짓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신앙적인 나이가 된다면 세속적 인본주의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변화를 주도할 아이들이 세상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4) 결어: 우리는 공립학교 교육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원리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은 기독교인 부모로서 국가의 불순종을 돕는 일입니까?
■ 권리: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이 불경건한 국가의 권위 아래 아이들을 맡겨두는 것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공립학교 시스템을 세웠다고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그 혜택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공립학교에 아이들의 모든 것을 맡겨놓고 공립학교의 세속적 인본주의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습의 의무를 감당해온 기독교인들이 국가나 공립학교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이며, 또한 공립학교가 유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2)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은 우리 사회를 비 신앙이 주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 개혁: 일반적인 학문의 내용에 대해 비기독교 교과서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이나 편협적 도덕 교육이나 편견을 가진 사상들이 교과서에 들어올 때 이것들에 대해 우리는 비판적인 거부와 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경건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기독교인의 책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에서 물러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사회발전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자신들의 아이들이 경건한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자로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인본주의의 흐름 속에서 무엇이든 거부하며 선택할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확립적으로 모든 세상의 문화를 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나기 전에 세속적 인본주의를 극복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들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홈스쿨링이나 사립 기독교 학교 혹은 경건한 경향을 가진 차터스쿨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그 말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메일: yoonsuklee@hotmail.com

세상의 종교는 나름대로 자기 사상(Meaning)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역사성(History)이 아예 없거나 결핍되어 있다 기독교가 참인 것은 경전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이기 때문이다

총, 포의 불꽃이 튀고 있다. 세계는 도처에서 흑시 모를 테러를 가삼하며 국가차원에서 보안이 가중되고 있다.
기독교 입장에서 어떻게 저들을 선교하라! 벽에 대고 얘기하듯 상통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절망은 패망이다.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근본적 차이는 무엇인가? 대대체 무엇이 이토록 싸움을 유발시키며 비극의 씨앗이 된다 말인가?

경전
기독교는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을 모두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있다. 이에 비해서 유대교는 구약성경만 믿는데 특히, 처음 다섯 권의 책, 모세오경(Torah)을 중요시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신약성경은 믿지 않는다. 그리고 탈무드를 부속으로 사용한다. 이슬람교는 구약과 신약성경을 모두 사용하고는 있으나, 무함마드가 알라로부터 계시 받았다는 쿠란(Qur'an)을 더 권위 있는 경전으로 여기고 있다. 그들은 성경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쿠란을 완전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성경과 쿠란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언제나 쿠란이 옳다고 생각한다.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비해 유대교는 율법준수를 강조한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얼마나 거룩한 태도로 행동해왔느냐에 따라서 내세(來世)가 결정된다고 믿는다. 무슬림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선하고 바른 행동을 하면, 다음 세상에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이 율법적으로 철저히 종교적 의식과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처럼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맺는 말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는 영원히 하나 될 수 없는가? 비판적이다. 비록 세 종교 탄생의 지리, 문화적 배경이 상이하다 해도 근본사상과 지향점 그리고 해석과 선교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충돌은 필연적이다. “살림(평화)”을 향한 인간의 노력은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계시록 22:20 말씀처럼 주님이 속히 오시는 길밖에 없다. 그렇다고 기도원에서 신세타령하며 하늘만 보고 있을 것인가? 주님은 이미 오셨다. 그분은 지금 영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시어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은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조망해야 한다. 이는 모든 문제를 표피적인 접근보다 진정하심 하나님과 그분에 의해서 성립된 인류라는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다. 나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산제사로 드려야 한다.
이메일: jrsong007@hanmail.net

신관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영원히 동일하신 세 인격이 삼위일체로 계신다.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 일체(一體)로서 유일신이다. 유대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다. '야훼(YHWH)'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유일신으로 믿고 있다. 이슬람교 역시 유일신을 신봉한다. 그 신의 이름은 “알라”이다.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한다.
메시아

신관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영원히 동일하신 세 인격이 삼위일체로 계신다.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 일체(一體)로서 유일신이다. 유대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다. '야훼(YHWH)'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유일신으로 믿고 있다. 이슬람교 역시 유일신을 신봉한다. 그 신의 이름은 “알라”이다.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한다.

신관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영원히 동일하신 세 인격이 삼위일체로 계신다.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 일체(一體)로서 유일신이다. 유대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다. '야훼(YHWH)'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유일신으로 믿고 있다. 이슬람교 역시 유일신을 신봉한다. 그 신의 이름은 “알라”이다.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한다.

신관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영원히 동일하신 세 인격이 삼위일체로 계신다.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 일체(一體)로서 유일신이다. 유대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다. '야훼(YHWH)'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유일신으로 믿고 있다. 이슬람교 역시 유일신을 신봉한다. 그 신의 이름은 “알라”이다.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한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7:30 (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덴버에담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Tel: (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www.kopscchurch.org</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891, 267-471-7777 Fax: (610)222-08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배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515)945-1512, Fax: (5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www.1946s.com</p>	<p>벤델교회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부흥예배(찬양): 오후 1:45 EM: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1:30 종교개혁의: 오전 10시, (만: 오전 11시) 유치, 유년: 오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opedon, MA 01748</p>	<p>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1부예배: 오전 10:45 주일2부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 (704)529-0800 / 0998(팩스) 701 Scalesboro Rd., Charlotte, NC 28209</p>
<p>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p>	<p>시애틀평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opscchurch.org</p>	<p>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Fax: (702)478-3825 3825 Melody Ln., Las Vegas, NV 89108 www.omychurch.org</p>	<p>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시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1946s.com</p>	<p>앵커리지델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제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부흥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엘파스델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Tel: 교회: (915)755-1490, 사택: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p>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254)634-8705(H), (254)531-1842(C) 1000 E. Valetre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www.1946s.com Tel: (804)560-7500, Fax: (804)6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2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nacrc.com</p>	<p>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부흥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p>	<p>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선교 편지

페루

할렐루야! 주안에서 평안하신지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주안에서 안부 드립니다. 이카(Ica) 약속의 땅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간중하고픈 마음에 이렇듯 편지를 씁니다.

먼저 페루는 현재 조금씩 개선되고 전환하는 비율이 늘고 있지만 카톨릭이 페루 전 지역에 자리잡고 있어 복음을 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나라 중 하나입니다. 미국 감리교가 페루에 들어온 지 140년 만에 포기하고 자국으로 돌아갈 정도로 선교하기가 참으로 힘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나라든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운 나라가 없었지만 페루는 자국민들의 성향상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착하여 믿음이 성장되기가 참으로 힘든 국민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와서 1년 이상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독특한 성향들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성장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선교가 힘든 나라임을 먼저 이야기 해드려야 간증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저희 부부에게 몇 달 전부터 '부활'이라는 말씀으로 새롭게 복음의 참 진리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나라든 십자가

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위주로 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아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것 또한 중요한 사실이며 중요한 진실이지만 우리는 지금도 십자가를 위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닌 '죽으신 예수님'만을 전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셨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이 아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게 고민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들은 거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 순교한 사도들의 행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의 교묘한 눈가림으로 그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는 이 초보적인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을 심어준 사단에게 속아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랑 안에 가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고전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고전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듯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며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죄가 회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음에도 예전에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많은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있었음에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게 가리워져 있었지요.

사도들이 죽기 살기로 전하였던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전한 것이 아닌 오로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려 목숨을 걸며 순교까지 했다는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오늘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요즘처럼 넘쳐나는 좋은 말씀들과 성경적 지식을 높여 이대에 걸 맞는 지식의 욕구들을 채워주는 이 시대에 다 알고 있어 시시하다 할 정도로 초보적인 말씀인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했었는지 이 편지를 읽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열리셔서 이 말씀들이 들리시길 진심으로 기도 드립니다.

그리고 꼭 사복음서를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길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간과한 초보적인 이 사건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표적이며 증거인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찬양예배모습

이 '부활'이 '인지'되는 순간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사랑인 십자가의 사랑도 죄인이라 단어도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모두 사실임을 한순간에 다 알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님, '부활' 다 알고 있는 부활이라고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고 주님께 여쭙보시어 마지막 이 시대에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라시는 우리 은혜가 한량없으신 주님께서 이렇듯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전하여 보았습니다.

이카 약속의 땅 교회

약속의 땅 교회는 현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2층 지붕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가까운 지인을 페루까지 보내주셔서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지붕공사는 저희 생활비까지 다 모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현재 2층 미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부들의 임금을 줘야 하지만 저희들의 사정을 알고 있고, 약속의 땅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

을 잘 알기에 감사하게도 임금 독촉을 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진행해주고 있음에 너무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기까지 많은 것들이 남아 있지만 7월까지 공사가 끝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역사해주셨던 우리 주님만을 믿으며 믿음으로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페루 약속의 땅교회 건축이 잘 마무리 되어 깨끗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교회가 전도의 도구가 되어 잃어버린 수많은 이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카 약속의 땅 학교



이카 약속의 땅

일전에 선교보고에서 언급을 하였던 학교 건축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현재 현실이 되어 땅부지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뤄지고 있음에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언제 시행이 될 지 아직은 알 수 없으나 주님이 말씀하실 그때에 순종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기독교 학교가 건립되어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페루에 넘쳐 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며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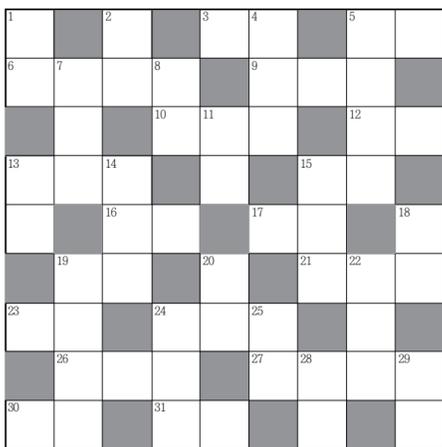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 마음 변치 않고 주님 나라 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꼭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며 상황과 환경에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증거'인 '부활'을 보여주셨기에 그 사실인 증거를 붙잡으시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형제자매님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 드립니다.

어쩌면 이 복음을 먼저 깨닫고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양해를 구해드립니다. 그저 함께 나누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만을 적어보았기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Jesu Cristo Resucito
이카 페루에서 부족한 중
유동혁 올림

십자말 • Cross Word (90)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가로 푸는 열쇠>

- 말, 소, 양 등을 놓아기르는 넓은 들이나 산 같은 초지(삼하7:8).
- 재물을 체면없이 아니꼽게 야경(고후9:7).
- 양심을 버린 사람인 고로 바울이 징계하기 위해 사단에게 주었다고 했다(딤후1:20).
- 소나 돼지 같은 것을 잡아 죽이는 곳(사34:7).
- 목에 거는 장식물(출35:22).
- 산비둘기(야2:12).
- 열 또는 찬 기운 때문에 대기 밀도의 급변으로 빛이 이상하게 꺾여 공중이나 땅 위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명).
- 알지 못함(창34:25).
- 이상야릇함(렘5:30).
- 살아 나감(행26:4).
- 코끼리의 어금니(왕상10:18).
- 임금을 호위하는 군대(삼하23:23).
- 더운 물이 솟구쳐 나오는 샘(창36:24).
- 유대인의 종교, 율법과 유전에 기초한 것으로 한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행2:10).
- 므낫세왕의 장인(왕하21:19).
- 매우 뉘우치며 스스로 고백하고 항복함(시34:18+레5:5).
- 무리한 생각이나 행동을 고집하는 일(몬1:14).
- 몰래 피해 달아남(겔7:16).

<세로 푸는 열쇠>

- 유대의 선지자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유대왕 여호사밧을 책망한 자(왕상16:1-6).
- 도시의 안쪽(막8:33).
- 못을 막고 빼는 연장(렘10:4).
- 인장으로 사용하는 반지(창41:42).
- 여름, 가을에 논 풀밭에 많이 사는 길이 3cm 정도의 초록색 곤충(출10:4).
- 감나무과의 상록교목(겔27:15).
- 잘난 체하고 으스스함(시73:8).
- 대단한 괴로움(신26:7).
- 소아시아 서남 해변에 있는 작은 도(행27:5).
-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눅14:14).
- 대나 나무로 된 긴 막대기(민21:8).
- 온 천지,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수2:11).
- 옛 시대(말3:4).
- 수고한 것을 아무만져주고 괴로움을 잊게 하며 칭찬해 주는 사람(전4:1).
- 가릇 유다 대신에 12사도로 천거된 요셉의 별명(행1:23).
- 서로 막힘이 없이 오가는 일(잠3:32).
- 예배당(시74:8).
- 기쁜 소식, 굿뉴스(갈1:7).

십자말 정답



하나님의 구원계획 세미나

- 일시: 2015년 7월 14일(화) 오전 10:00~ 오후 4:00
장소: 조지아 서라벌 레스토랑 (770)497-1155
3040 Steve Reynolds Blvd, Duluth GA 30096
- 일시: 2015년 8월 4일(화) 오후 2:30~ 오후 8:00
장소: 달라스 수라레스토랑 (972)243-5656
2240 Royal Ln. #106 Dallas, TX 75229
- 일시: 2015년 8월 6일(목) 오전 11:00~ 오후 5:00
장소: 휴스턴 서울가든 레스토랑 (713)935-9696
9446 Long Point Rd, Huston, TX 77055



강사: 라해채 목사 (뉴욕제자들교회)

구역, 신약과 애먼서인 대니엘서 계시록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수있는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세미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P.O.Box 610178 Bayside, NY 11361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DYNAMICS 다이나믹스
MARTIAL ADRENALINE ZONE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교회 타월
교회 티셔츠
프린팅 및 지수
광고배너
교회배너 제작

www.dynamicsworld.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공원 건너편)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터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사모칼럼 // 회복된 사모, 행복한 시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12. 사모의 침실 가꾸기(1)

동성애가 급증하는 시대 속에서 과연 크리스천의 가정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이 동성애 나라가 되기까지 10년의 세월이 걸린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불과 몇년 만에 지금 표면화 되어 이제 유치원교육까지 영향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남성 머리를 보게 되거나 여성 사위를 보게 되는 사회를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가 하면 사람과 짐승이 한 부부가 되어 가정을 꾸며 가거나 혹은 가정의 구성원이 남자와 남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회에서 살아야 할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하면 할수록 심각해집니다.

가정은 성경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성경의 처음 시작이 가정이고 제일 마지막 계시록에 주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도

모든 가치는 인간관계 속에서 얻기 때문에 소통 능력이 중요 우리를 귀히 여겨 인간되신 주님같이 남편 존재 귀히 여겨야

두는 신부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으로 결론짓는 책이 성경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에도 이혼의 바람이 마구 들어와 이제는 사모들마저 이혼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 없이 쉽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은 자칫하면 소외되기 쉽습니다. 성도들을 돌보며 목회에 집중하다보면 가정을 소홀히 하다가 그만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금이 가는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요즘 들어 부쩍 관심이 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소통입니다. 같은 한국말인데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 금이 가거나 아니면 그걸 묵안하고 살다가 황혼이혼으로 들어가는 부부도 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서로 소통이 없으면 성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의 감격의 소리를 들으면서 태어납니다. 아이라면 누구나 하는 짓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이만 광장한 것으로 착각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 감탄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도 아무도 반겨주는 이 없는 곳에서 혼자 성장한 아이라면 그 아이의 정서는 매우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칭찬과 감동의 소리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성장한 아이는 어른이 되어도 남에게 사랑을 베풀기가 쉽습니다. 부부의 제도를 만드신 목적 중에 한 가지는 서로 칭찬과 격려를 성장에 필요한 자양분으로 삼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들이 신혼기가 지나면 사랑의 감정은 식어져서 무덤덤해집니다. 그 때부터 필요한 것이 존중입니다. 사랑의 호르몬은 어느 일정 시기가 지나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존중하는 것은 호르몬과 관계없습니다. 이혼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존중을 겸해서 해야 합니다. "이혼의 수학"이라는 책에서는 3000명을 분석한 결과 부부사이에 경멸이 쌓이게 되면 이들은 향후 5년 뒤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이 존경스럽지 않다 해도 경멸하는 생각은 무시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반드시

부부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후부터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시작합니다. 서로 존중하다 보면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마음 없이 사랑만 하는 대상은 동물들입니다. 동물 신호시대가 되면서부터 강아지 유치원, 강아지 호텔, 강아지 장난감, 강아지 패션들이 많은 사업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강아지가 말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강아지 인격형성을 위한 학교나 존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단지 사랑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편을 강아지 대하듯 사랑만 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을 강아지의 수준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소통능력이란 건강한 사랑, 건강한 존중으로 연결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소통능력에 뛰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과도 설득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신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통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1) 모든 가치는 인간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인생의 삶은 인간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성공한 사람은 그의 인생 전부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육체는 육체도 건강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말을 수록 심장병은 적은 반면에 외로운 사람은 암이나 감기에 많이 걸립니다.

여성들은 대체로 인간관계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부관계의 개선은 남편보다는 아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수다는 무죄라는 말도 있습니다. 구조상 여성들은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대가 지나면 여성들은 가정을 뛰쳐나가 친구들과 수다

를 떠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합니다. 자신의 존재감도 이제 새롭게 찾고 싶어 합니다. 여성은 하루에 2만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남성들의 경우 5천 단어 사용하고 나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피곤해집니다. 이런 현상으로 아내들은 남편과 멀어지게 되고 남편이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렇다고 남편들이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그동안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쏟고,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 빈 둥우리가 되고 나서 자신의 정제감을 다시 찾으려 하다보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됩니다. 이때 자기의 속을 털어 놓을 수 있는 대상을 찾아 나서는 사람은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심한 우울증으로 인생의 내리막길을 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존재감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마침내 우울증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존중히 여길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사람의 가치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존중이란 상대방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생각과 그의 언어를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셨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죄에 물들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예수님 그는 전능자 창조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인간의 탈을 입고 오셨습니다. (벧전2:21-3:1).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시려 세상에 낮은 자로 오실 수 있었던 것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존귀히 여길 때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고 따라서 그에게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 주님같이 우리도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편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월 사도의 계시(벧전1:1-2)찬206장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 사도의 계시는 모든 일의 표준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 역시 가진 분명한 확신이었었습니다(엡2:20). 그 기준은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 적용해야 합니다. 첫째, 베드로는 자신의 사도직 권위를 주장합니다(1). 베드로서신은 교회에 보낸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근거 위에 우리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뜻을

밝혀주십니다. 둘째, 계시를 받는 대상은 흠어진 나그네입니다. 오직 택함 받은 제한된 부류 곧 교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에 있든지라도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십니다. 환난 속에 사는 교회는 사도의 계시위에서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흠어진 세상에 유일한 소망과 지혜는 사도의 계시입니다. 그 자리에 바로 설시다.

화 신자의 구원 인사(벧전1:2)찬474장

신자의 구원은 일시적인 구출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구원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첫째, 영원한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된 구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 계획 속에 모든 일들이 우리의 구원에 초점을 두고 움직이는 것이기에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롬8:38-39, 요1:1-3) 하나님으로 시작한 구원이기에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죽음으로 이루신 그리스도는 오직 택한 자만을 위한 것이었음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인 내 속에서도 증거되도록 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령의 기록하심으로 나타나는 구원입니다.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완성과 성령의 적용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구원의 인사를 나눕시다.

수 산 소망(벧전1:3-7)찬226장

신자는 왜 산 소망을 가집니까? 첫째, 거듭남에서 오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3-4).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택한 자의 마음에 거둬내는 생명을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부활이라 할 수 있는 중생은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게 합니다. 둘째, 영원한 기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4-5). 산 소망의 마지막은 영원한 기업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의 기

업은 예측 못해 불안을 안겨주지만 하늘 기업은 참 안식과 부요를 누리게 합니다. 동시에 그 기업은 이 땅에서의 보호에 근거가 됩니다. 셋째,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5-7). 산 소망의 뿌리는 산 믿음에 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을 통한 믿음의 연단이 소망을 누리게 하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산 소망의 삶을 통해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다.

목 영혼의 구원(벧전1:8-12)찬543장

성도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첫째, 이는 구약 선지자들이 연구한 것입니다(10-11). 신약에 임할 구원을 미리 살피고 연구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되는 구원을 증거했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상으로 떨어져 있으나 성령의 역사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임으로 신약의 구원이 이렇게 뿌리 깊으신 사실을 증거합니다. 둘째, 이는 성령의 계시였습니다(12). 이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시로서 성령이 친히 그들을 감동시켜 해석하고 예언케 해 오늘날까지 이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신적계시를 바로 받은 자만이 거듭남과 그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영혼의 완전한 구원을 예상한 것입니다(8-9). 이는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으로 그의 형상을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주장해야 합니다.

금 거룩한 행실(벧전1:13-16)찬539장

구원 받은 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근신의 삶입니다(13). 근신을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으로 말한 베드로는 결국 거룩한 행실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육과의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둘째, 재물을 기다리는 삶입니다(14). 자기와 계속되는 치열한 싸움은 언제나 더 큰 힘을 필요로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을 받

는 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내세 신앙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자만이 현재를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셋째, 거룩한 삶을 힘써야 합니다(15-16). 그러기 위해 개인의 사욕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표준으로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열정과 수고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 길로 갑시다.

토 나그네의 두려움(벧전1:17-21)찬221장

번역이 그런 기독교도의 여정처럼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길을 가야 합니까? 첫째, 두려움으로 지켜야 합니다(17). 공포의 두려움과 달리 그 아들에게 임박하는 사랑을 기본으로 한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둘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18-19). 나그네 길에 반복되는 싸움은 사탄과 세상의 문명, 문화보다 우리 자신 속의 죄이며 죄를 짓게

하는 정욕입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괴로워할 때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때마다 주님은 정결케 하여 우리의 길에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요일1:9). 셋째, 진실주의로 살아야 합니다(17). 이 좁은 길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기엔 진실분위기가 아니면 따를 수 없습니다. 당장 손해나도 진실하게 사는 것이 복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호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계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8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r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동양구 망우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상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일6부예배: 오후 11:00, 7:00 (주)110-831-1111 (주)1131-231 Tel. (031)877-3339-9, Fax. (031)877-8382 (주)110-831-1111 (주)1131-23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8:00(매일)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2-8676(교우회)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상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침례인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후 6:30 Tel. (82)2-2648-3181~3, (82)2-2646-3184 서울시 강북구 옥동2동 520 (142-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98-999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옥동2동 520-43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경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8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32-588-0191, Fax. (82)32-58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02)389-2235 (110-29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37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매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Tel. (82)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구 구름길로 17길 29(금일빌딩)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Tel. (82)2-786-6579, 새벽(0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927-5511 서울 용매동구 제기2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영로 415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송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곡4동 294-1(104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중구 동교동 성4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경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 (1)



염예선 박사
(플러신학대학원 가정상담 및 한국가족학 교수)

한인교회가 위기에 처해있고 그 위기의 중심에는 목회자가 서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목회자들이 어떤 점들을 갖추어야 할지에 대하여 고찰해보겠다.

1. 제자로서의 삶의 의미와 중요성

제자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모범을 따르는 삶이 요구하는 대가를 잘 알면서도 그러한 삶을 살기로 선택한 사람으로서, 예수께서 가르친 하나님의 통치에 믿음의 순종을 하여 자기희생을 통해서라도 의를 이루고 하나님나라의 살림을 실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지칭한다(Yoder, 1994). 예수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기본적으로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가르쳤다(마12:28-34; 마22:35-40; 눅10:25-28). 즉 맘몬 우상 숭배와 이웃 착취로 자신의 안락과 행복을 꾀하려는 사탄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며(마6장),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보다도 사랑하는 삶(마5:38-48; 6:14-15)을 살라고 가르쳤다(김세운, 2013).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주장하며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대신 자기희생을 하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날 목회자와 교회의 가장 긴급한 제 1 소명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을 반영하며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다. 즉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가 중요하지만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통해서만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Laberton, 2014:84) 제자로서의 삶은 목회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김세운은 복음 선포자들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그려내는 플래카드(placard)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고후4:10).

그동안 한국 목회자들은 세계적 교회 부흥의 불길을 이루어왔다. 그 과정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제치고 오직 교회성장에만 초점

을 맞추었다. 그 결과 목사는 많으나 참된 목자를 보기 힘들다는 말들을 많은 교인들이 하고 있다. 현재 기독교 교세가 추락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교회들이 성장이 아닌 생존 모드로 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그 동안에 일어났던 문제들보다도 더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들과 치열한 경쟁이 목회자들에게서 일어날 것을 많은 사람들은 우려하고 있다.

2.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목회자들의 삶의 자세

1)제자로서의 삶은 고난의 삶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즉 그들이 부르심 받은 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고 "망명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Labberton, 2014:69).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실 때 어느 누구에게도 영광과 평안함을 약속하지 않으셨음을 잘 안다. 바울은 자신의 비참함을 "세상의 쓰레기요 만물의 찌꺼기"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을 통하여 사역자의 인격을 연단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양들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었으며, 복음을 더욱 확신을 가지고 전파할 수 있었다(갈6: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최순봉, 2012).

2)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목회자들은 목회직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목회자는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거나 자기주장을 하지 않고, 교인들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교인들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산다. 교인들로부터 특별한 대

접을 기대하는 목회자는 자신도 모르게 가난한 교우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차별한다. 성도들은 이런 목회자들에게서 상처를 받고 결국 그들을 거부하게 된다.

3)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목회자들은 목회나 삶에서 모든 판단이나 결정이나 행동을 할 때 그 기준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이중계명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 실현과 확장에 둔다. 그들은 자신이나 자신의 교회는 이득을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실현되고 확장되지 않는 결정을 피하는 반면에 자신이나 자신의 교회는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확장되는 결정을 감행한다.

4)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목회자들은 기독교 윤리를 행동 전반의 토대로 삼는다. 그들은 목적을 위하여 방법을 타협하지 않으며, 교회를 이끌 때나 개인생활을 할 때 사회법을 잘 지킨다. 예를 들면 어느 목회자는 결혼 20년 만에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려고 저소득층을 돕는 대출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는데 자신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약간의 거짓 보고를 했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그 목회자의 그

제어하는 삶을 산다. 즉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을 지는 삶을 살고자 애쓴다(Dawn, 2010, 2004).

5)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영광돌림과 자신의 목회적 야망을 구별한다. 이러한 구별을 못할 때 목회자는 소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성장"을 외치는 과정에서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잃고 자신도 모르게 교인들이 숫자로 보이기 시작하고, 교회성장이라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보인다. Martin Buber의 개념을 사용한다면 교인들이 Thou가 아닌 It로 보인다. 그 결과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질문서를 요구하는 일까지 일어나는데 이것은 일종의 종교학대다.

오늘의 슬픈 현실은 목회자가 교인들을 It로 취급할 때 교인들 역시 목회자는 물론 다른 교인까지 It로 취급한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교회가 걸로 볼 때는 활발히 사역을 하는 좋은 공동체인 것 같이 보이거나 실제로는 각자가 자기 방어막 속에 거하며 매우 위선적이고 피상적인 사랑을 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6)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목회자들

목회자 제1소명은 예수님 제자로 고난과 섬김의 삶, 판단기준은 하나님나라 실현 기독교 윤리를 행동 전반의 토대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과 야망 구분해야

와 같은 윤리적인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청년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신실한 목회자에게는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정직한 삶을 살도록 설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예를 들면 세금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물건을 팔 때 세금을 안 받고 손님과 불법적인 상거래를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윤리적인 삶에 관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기독교 윤리를 행동 전반의 토대로 삼는 목회자는 사회악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개인적인 삶이 인격적인 성숙성을 반영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한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달성이나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답인 목회자들이 부목사들을 방패막이 삼는 경우가 있다) 제치지 않으며, 사실이 아닌 말을 사실같이 말하거나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서 반만 사실인 말들을 하지 않으며, 듣기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나쁜 의미로의 교회정치를 하지 않으며, 동료의 성공을 축복하며, 동료를 모함하거나 시기 질투 하지 않는다.

이러한 목회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남들에게 끼칠 수 있는 악영향을 늘 의식하고 남에게 비난받을 발미를 주지 않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자신이 싸워나가야 할 자신 내부의 악마를 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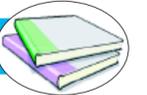
은 악에 대한 분별력과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 목회자는 다른 누구보다도 세상과 문화와 교회내의 악의 존재를 민감하게 꿰뚫어볼 수 있는 능력(신국원, 2012)과 이것들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위에서 거론한 대로 목회자가 윤리의식을 행동 전반의 토대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돌림과 목회적 야망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나 지체의 삶의 방식과 태도 안에 어떤 악이 있든지 그것에 대한 '분별력'과 단호한 혐오감을 가져야 한다"(Dawn, 2010:178).

Amplified Bible은 로마서 12:9을 "모든 불경건한 것들을 혐오하며 사악한 것들에서 뭍어내며 돌아서라"고 번역하고 있다.

7)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목회자들은 자신의 맹점(blind spot)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기도과 목상을 통한 자아성찰을 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멘토와 동료들의 피드백을 구한다. 목회자들이 흔히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보다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맹점 때문에 실족한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타인들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계속)

책 소개



"나의 비전 나의 미래"



저자 정요한 목사

정요한 목사(미주베델교회/크리스천헤럴드 사장)의 삶과 신앙이야기, 목회 30년을 통해 전한 말씀들이 모아진 '나의 비전, 나의 미래'(갑우문화사)가 최근 출간됐다.

"초등학교 시절 시골소년에게 꿈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라고 고백하는 저자는 "그 예수님이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삶에 대한 도전하게 됐고 지금까지 달려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많고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있지만 지난 60년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신 그분이 앞으로도 되어질 일들을 예비하고 있을 줄 믿는다"고 강한 믿음을 표현했다.

성격이 급해서 곧잘 말을 더듬고 덤뎠대길 잘했던 그에게 아내는 '불광동 휘발류'라는 별명을 선사했다고 한다. 이런 그가 예수가 되니 이제 터널 끝이 보이려고 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의 삶도 약속을 잘 지켜 신뢰를 받는 사람, 열 명의 친구보다 한사람의 적

간증과 설교, 칼럼 등 다양하게 구성

을 만들지 않겠다는 소신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관계를 잘 이뤄가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의 마음도 적었다.

분서는 제 1부 '산골소년의 꿈', 제 2부 설교 모음, 제 3부 칼럼 모음, 제 4부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로 나누어 구성했다.

제 1부 산골소년의 꿈을 통해서 '아름다운 만남', '한국 목회사역', '미국 이민생활', '목회와 언론인의 생활'의 제목으로 자신의 살아온 삶을 진솔하게 고백했으며 2부 설교모음에는 절기설교와 일반설교로 구분해 30여 편의 설교를 수록하고 제 3부에는 자신의 칼럼 50여 편이 실려 있다.

특히 주목을 끈 것은 제 4부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저자를 알고 지내던 주변의 지인들의 쓴소리, 단소리들을 여과 없이 수록해 정요한 목사의 삶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저자는 마지막 장 에필로그를 통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부터 조그만 일에서부터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지내는 것"이라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에 겸손하게 섬기는 일을 할 것을 다짐 한다"고 끝을 맺고 있다.

정요한 목사의 다른 저서로는 '전 높은 곳을 향하여', '요한복음강해', '목회상담학', '상담심리학' 등이 있다. 책에 관한 문의는 chung5505@yahoo.com 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에 에세이를 연재하며 교회를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영혼의 저널리스트로 주목 받고 있는 소강석목사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신앙, 역사를 향한 뜨거운 외침이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꽃씨 심는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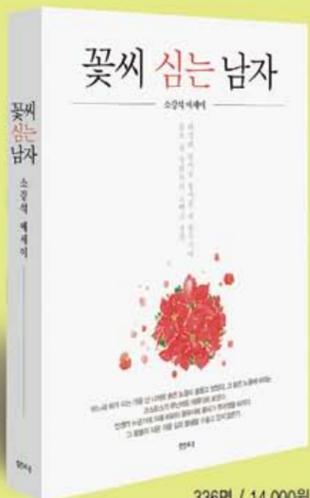
소강석 에세이집

"그는 거친 황야를 달려가는 들소처럼 가슴을 뜨겁게 하는 야성과 소망이 있다."

- 이어령 교수 -

"목사, 시인, 애국자 등 그가 지닌 세 얼굴이 때로는 교차하고 때로는 번갈아 드러나면서 글 읽는 맛과 호소력을 더해준다."

- 이선민 조선일보 기자 -



336면 / 14,000원

샘터

소강석 기념식 낭송시 모음집



251면 / 10,000원

쿰란출판사

평화의 꽃씨

한국교회 최초 기념 시집! 목회자들에게 기념예배 참고와 교회 대표기도를 하는 중직자들에게는 기도문 작성에 큰 도움이 될 영성과 감성의 시적 언어! 예배 인도자들이 꼭 한 번 읽어주어야 할 시집!

소강석 지음

열어주소서